



# 2023년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 결과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남산문화재단

An abstract graphic design featuring a large teal square in the top-left corner. From its bottom-right corner, several thin teal lines radiate outwards across the white background. Two of these lines are thicker and composed of dashed teal rectangular segments. One dashed line extends towards the top-right, and another extends towards the bottom-right. A third dashed line extends from the bottom-left towards the center. Small teal circles are placed at the ends of some of the thinner radiating lines.

## 2023년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 결과자료집

발행일 2023. 11. 30.

발행인 남동문화재단 김재열 대표이사

편집인 남동문화재단 임원재 사무국장

기획인 남동문화재단 김희성 문화예술지원팀장

제작인 남동문화재단 신창희 차장, 이다솜 주임, 황승빈 사원

발행처 남동문화재단

디자인 노아 북앤컬처

문 의 070-8820-4037

# 목차

<b>사업 소개</b>	<b>6</b>
문화가 있는 날-지역 간	8
연계·협력 사업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	10

<b>사업 장소</b>	<b>14</b>
소래포구	16
소래역사관	20
새우타워	22
남동소래아트홀	25
소래포구전통어시장	27
소래갯벌	30

<b>사업 운영</b>	<b>32</b>
특별회차	
남동 온 스테이지 ep 1.	35
가족 대상 회차	
소래바다 우리 가족 여행 1회차	42
소래바다 우리 가족 여행 2회차	50
소래바다 우리 가족 여행 3회차	60

성인 대상 회차	
소래바다 나를 위한 여행 1회차	69
소래바다 나를 위한 여행 2회차	76
소래바다 나를 위한 여행 3회차	84

<b>참여자 인터뷰</b>	<b>88</b>
김영란 셰프	92
안광균 소래포구전통어시장	98
상인회장	

<b>참여 예술인 인터뷰</b>	<b>106</b>
공연예술가 아침의 트리오	108
공연예술가 김나린 기타리스트	114
시각예술가 양익진 작가	120
행위예술가 원태운 미술사	126

<b>전문가 분석</b>	<b>132</b>
진나라 겸임교수(인하대학교)	134
서정미 외래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138
지영림 프로듀서(세종문화회관)	142
방문식 차장(평택시문화재단)	146
왕용운 대리(인천중구문화재단)	150
장미 주무관(화성시청)	154

<b>만족도 조사</b>	<b>158</b>
특별회차 만족도 분석	160
가족 대상 회차 만족도 분석	169
성인 대상 회차 만족도 분석	179

<b>부록 연계 관광자원</b>	<b>190</b>
소래포구 축제	194
소래습지생태공원	196
소래철교	198
장도포대	200
협궤열차	202
남동돌레길	204

# 사업 소개

## 문화가 있는 날 -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

### | 사업목적 |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서 추진하는 <문화가 있는 날 -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은 기존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 지역 간 연계성이 부족하여 사업 효과가 미흡한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지역 간 다양한 방법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 | 추진방향 |

2023년 추진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의 매뉴얼을 만들고,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추진합니다.  
형식적인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새로운 문화협력 모델을 창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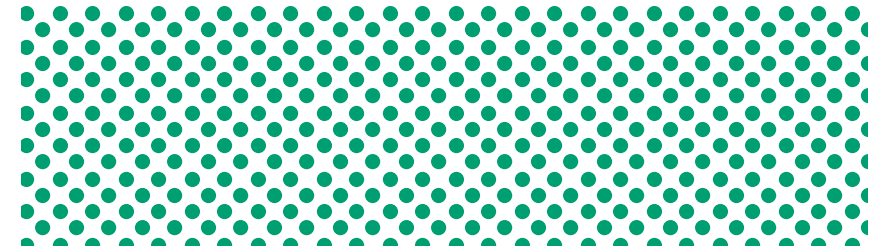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 ~ 12월

지원대상 : 전국 문화재단

지원방법 : 기획 공모를 통한 선정

사업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유형	내 용
지역 내 연계·협력 사업 (생활권역)	지역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지역 내 미술관,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협력하여 연계사업 개발 운영
탈권역 연계·협력 사업 (문화권역)	전국을 대상으로 역사성, 전통성 등을 고려한 주제 지정 후, 3개 이상의 지역문화재단이 협력·연계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린 사업 개발 운영

##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

### | 사업목적 |

남동구는 기존 공업도시라는 이미지로 인해 문화관광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아 왔으나, 소래포구를 중심으로 경관자원·역사자원·문화시설이 해안선을 따라 산재되어 있는 문화관광벨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래포구에 점적(點的)으로 분산되어 있는 문화자원을 선적(線的)으로 연결하는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지역의 문화관광 매력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번 사업을 통해 소래포구 생활권에 거주하는 구민에게 지역자금심을 부여하며, 소래포구를 찾는 연간 약 700만 명의 관광객에게 새로운 관광요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3 ~ 12월

사업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사업주관 : 남동문화재단

###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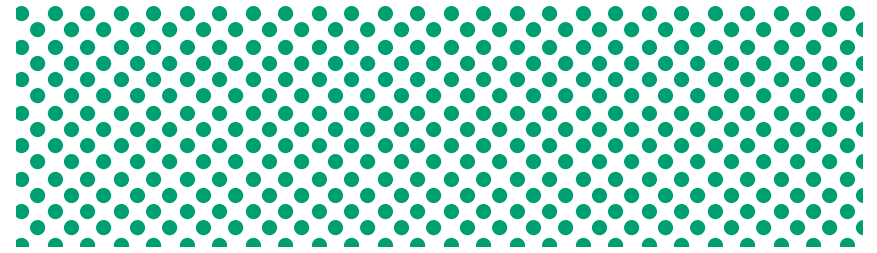
3 ~ 4월	기획공모 지원
4 ~ 5월	서류 및 PT 심사 참여
5월 19일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 최종 선정 알림
6월 3일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 특별회차 운영
6월 22일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 사업 컨설턴트 위촉
8월 21일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 컨설팅 추진
10 ~ 11월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 가족·성인 대상 행사 6회 운영

### | 사업내용 |

구분	행사명	운영일자	참여대상
특별회차	남동 온 스테이지 ep 1.	6월 3일(토)	4세 이상 누구나
본회차	소래바다 우리 가족 여행	10월 22일(일)	4세 이상 중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
		10월 29일(일)	
		11월 4일(토)	
	소래바다 나를 위한 여행	10월 25일(수)	성인 누구나
		11월 1일(수)	
		11월 8일(수)	

## | 기대효과 |

천혜의 자연경관과 즐길거리·배울거리·먹거리를 가진 소래포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남동구가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소래포구의 문화관광자원을 선으로 엮는 기획을 통해 새로운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아가 4세에서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자를 포용할 수 있는 기획을 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업 장소



## 소래포구

소래포구의 '소래(蘇萊)'에는 몇 가지 지명유래가 있습니다.

먼저 당나라 장수 소정방(蘇定方)과 관련된 설이 있습니다. 신라 무열왕 7년(660년) 신라와 중국 당나라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할 때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군사를 이끌고 황해를 건너와 소래에 주둔했다고 합니다. 이에 '소정방이 왔다'는 뜻으로 '소래(蘇來)'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옛 문헌의 기록에 따르면 소정방은 금강 하구인 기벌포(伎伐浦)에 상륙한 것으로 되어 있어, 소정방과 연관된 설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래가 '산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온 곳'을 뜻하는 우리 옛말 '솔'에서 나온 이름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산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온 지역에 산과 냇가, 그리고 소나무가 많아서 '솔내'라고 불리다 소래가 되었다는 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주목받는 주장으로, 소래는 '높은 곳'을 뜻하는 우리 옛말 '수리'가 변형되어 소래가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수리'는 '사라, 사리, 서리, 소리, 술, 수락, 술, 시루, 시라' 등으로 변형되어 사용되는데 소래 또한 이런 방식으로 수리가 변형된 명칭이라는 설입니다.



소래포구에서 '포구(浦口)'는 강이나 바닷가에 배가 드나드는 어귀를 말합니다. 포구와 비슷하게 쓰이는 말로 항구(港口), 어항(漁港)도 있습니다. 항구는 자연 지형(항만, harbor)이나 인공 구조물(항구, port)로 파도와 바람을 막고 배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항구는 터미널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선박을 묶어 놓거나 화물과 사람을 내리거나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항은 어선이 오가는 곳으로 어획물을 내리는 등 수산업 근거지를 말합니다.

소래포구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재래어항입니다.

소래포구는 일제강점기인 1934년 소래염전이 들어섰고, 1937년 수인선이 개통되면서 발전했습니다. 소래포구는 어항으로서 역할보다 처음에는 소래염전의 염부를 이동하기 위한 나룻배 한 척을 운행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1963년 실향민 6가구 17명이 작은 고깃배로 연안에서 새우잡이를 하면서 지금 모습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어항의 모습은 1973년 인천 내항이 개발되면서 작은 고깃배들이 소래포구로 옮겨 파시를 형성하고 갖추게 되면서 부터입니다.

지금은 수도권 제일 어시장으로 발전해서 꽃게·대하·젓갈·건어물을 구매하기 위하여 연간 약 70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한국 관광 100선'에, 2023년에는 소래포구 축제가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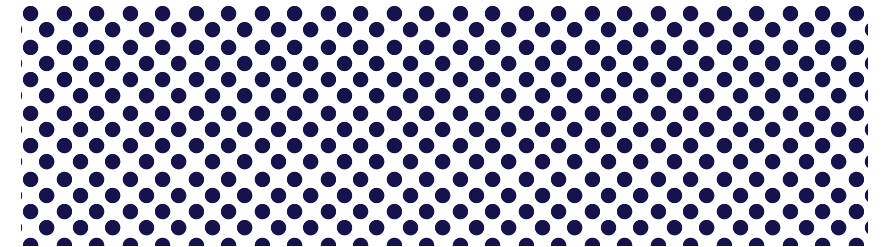
## 소래역사관

소래역사관은 2012년 6월에 개관한 공립박물관입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사라져가는 소래 지역의 역사와 민속을 보존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소래역사관 전시실은 4개로 구분됩니다. 1층의 소래염전 ZONE과 소래포구 ZONE, 2층의 소래갯벌 ZONE, 수인선 ZONE이 그것입니다. 소래염전 ZONE에서는 국내 제일의 천일염 생산지였던 소래염전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을 감상하고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소래포구 ZONE에서는 소래지역의 어업과 경제생활, 포구의 형성과 발전, 어시장 상인들의 모습을 디오라마를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래갯벌 ZONE에서는 갯벌과 관련된 삶, 개항기 이양선의 출몰과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수인선 ZONE에서는 수인선의 건설현장과 협궤열차, 그리고 소래철교와 관련된 전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소래역사관에서는 다채로운 전시와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어 많은 관람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새우타워

새우타워는 소래포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Landmark)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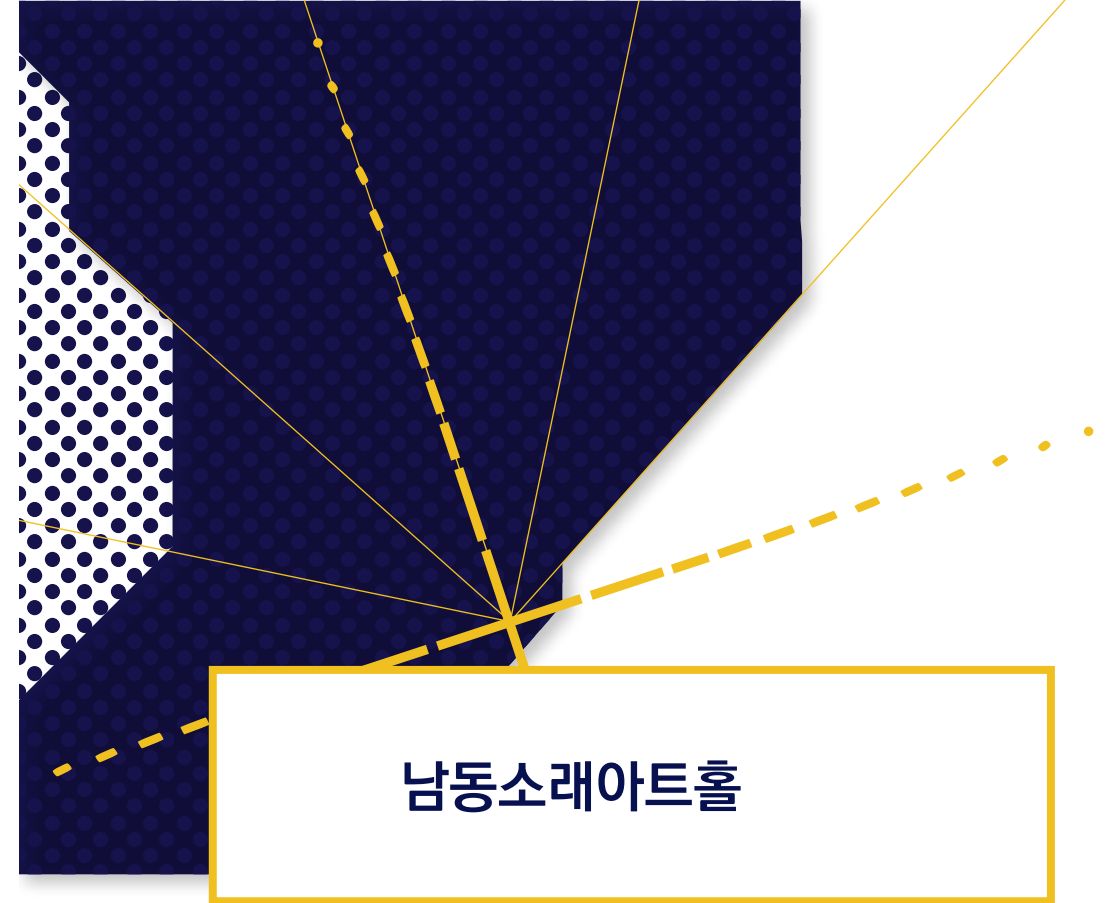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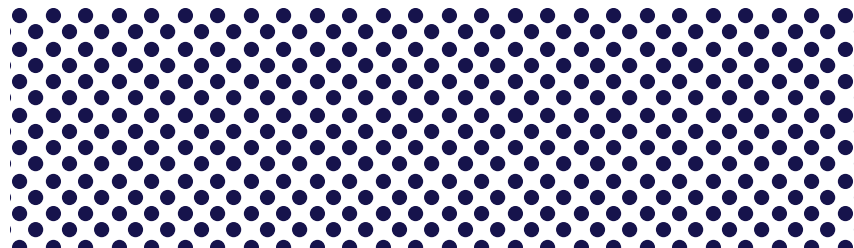
랜드마크는 본래 탐험가나 여행자, 순례자가 어떤 장소를 돌아다니다 원래 장소로 돌아올 수 있는 표식을 해둔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날은 특별한 건물이나 조형물처럼 어떤 곳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것을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만남의 장소이자 여행할 때 꼭 들러야 할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새우타워는 2020년 11월 12일 세워진 높이 21m, 폭 8.6m의 새우 모양 전망대입니다. 오랫동안 사용 않던 폐부두(소래포구 옛 5부두) 주변을 정리하고 전망대인 새우타워를 만들었습니다.

새우타워는 소래포구 대표 특산품인 새우를 본 떠 만든 조형 전망대입니다. 멀리서 보면 영락없이 바다에서 솟아오른 새우의 모습입니다. 딱딱한 등껍질에 둘러싸인 새우머리에 기다랗게 늘어진 수염, 그리고 가느다란 다리까지 만들었습니다. 등껍질은 철망처럼 안이 비쳐 보입니다.

낮에 3층 전망대에 올라서면 소래 앞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고, 타워 내부에는 보행로, 계단과 지상과 전망대를 잇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타워에서 나오면 소래포구부터 해오름광장을 연결하는 긴 산책로가 있습니다. 야간에는 타워 안쪽으로 7가지 색의 조명명이 반짝입니다. 타워 주변 바닥은 푸른 불빛이 물결처럼 일렁여 바닷속의 새우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 남동소래아트홀

남동소래아트홀은 2011년 11월 17일에 개관한 복합문화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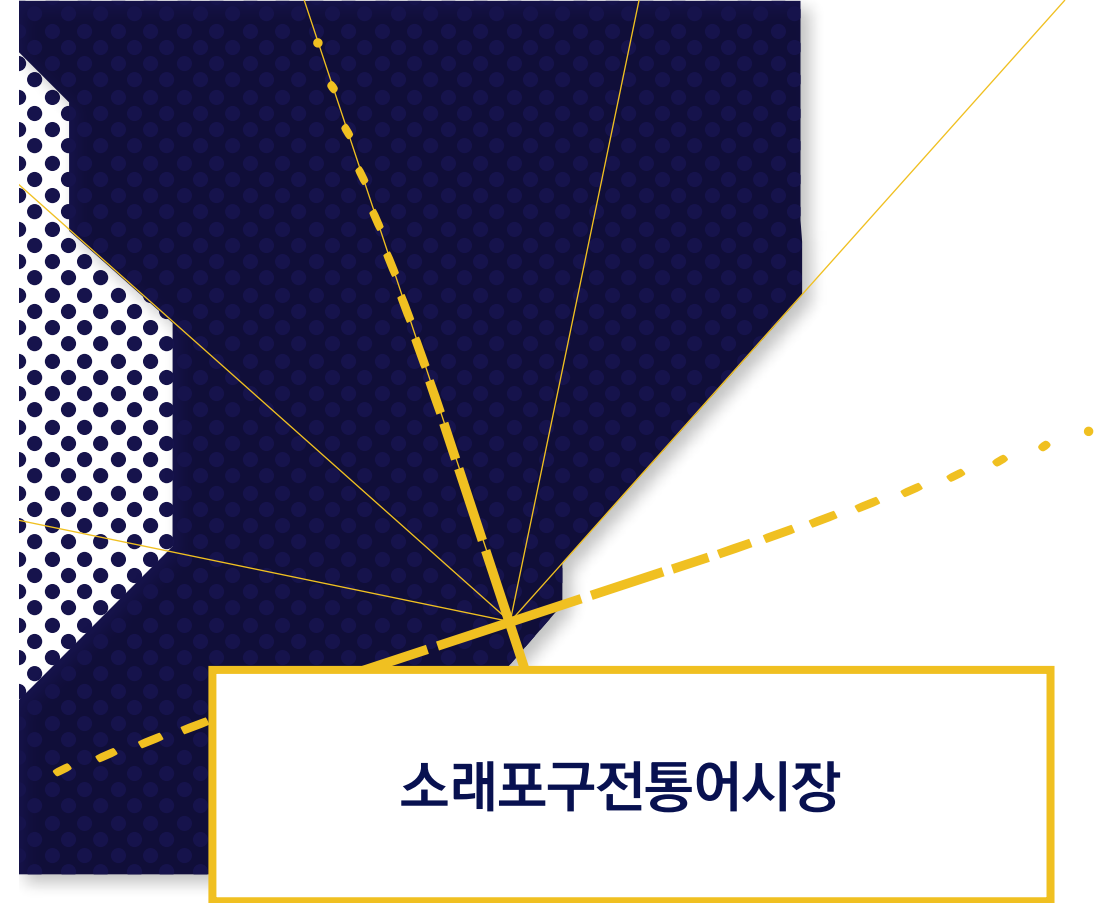
최초에는 남동문화예술회관으로 불리다가 2014년 8월 5일 지금의 이름인 남동소래아트홀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남동소래아트홀에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갤러리 등의 공간이 있습니다. 대공연장은 소래극장이라 불리는데, 총 703석으로 1층 좌석은 507석, 2층 좌석은 196석입니다. 대공연장에서는 뮤지컬, 콘서트, 연극,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공연이 열립니다. 소공연장은 스튜디오 오 제비라고 불리며 총 167석으로 서랍식 객석을 갖고 있어서 풍물 공연을 비롯한 여러 공연 뿐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갤러리는 화·소리 불리며, 총 면적은 525㎡입니다. 갤러리에서는 예술인의 전시나 사진전, 어린이 체험 전시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약 100년 전인 1910~1920년대까지만 해도 인천 바다에 고래 출몰이 잦았고, 이에 따라 고래를 잡는 포경(捕鯨) 활동이 활발했었다고 합니다. 남동소래아트홀은 과거 인천 바다를 자주 찾아왔던 고래를 추억하며, 외관을 고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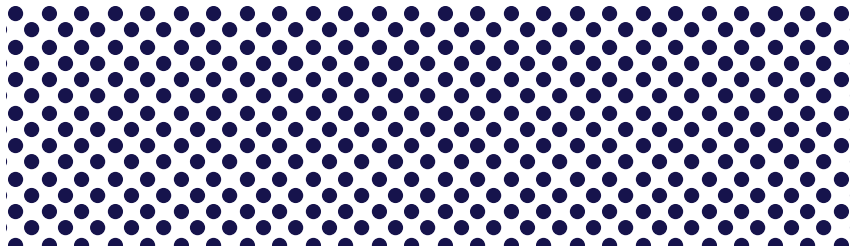


##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은 소래포구의 대표 어시장입니다.

소래포구에 시장이 들어선 것은 1930년대부터입니다. 포구에 어선이 드나들게 되자 상인들이 자생적으로 모여 어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70년대 인천 내항이 준공되었고, 정박할 곳을 잃은 소형어선들이 소래포구로 몰려들면서 상인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소래포구전통어시장에는 총 322개의 좌판이 형성되어 꽃게, 새우, 젓갈 등의 판매가 성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3월 어시장에 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373개의 좌판 중 244개가, 40곳의 점포 중 15곳이 불에 타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동구에서 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착수하게 되었고, 2020년 12월에 지금의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의 구조로 약 3,045㎡의 규모입니다. 봄철에는 꽃게를 사기 위해 많은 방문객이 몰리고 가을철에는 김장을 위한 젓갈을 사기 위해 사람들로 방문객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지원을 받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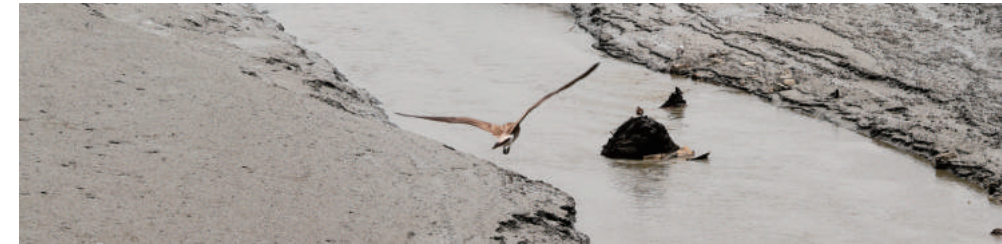
## 소래갯벌

서해바다 하면 모래사장보다는 갯벌을 떠올립니다. 갯벌은 개펄, 줄여서 펌이라고도 불립니다. 바닷물이 밤낮으로 오고 가면서 오랫동안 부드러운 흙이 바닷가나 강에 쌓인 곳입니다. 갯벌은 대부분 평평합니다. 그런데 물길이 흐른 흔적이 오래도록 남아 소래포구 너머 생태공원 방면처럼 갯골을 이루기도 합니다.

인천의 갯벌은 1910년대 대규모 간척사업을 벌이기 전 북부의 김포갯벌, 중부의 송도갯벌, 남부의 남동갯벌, 이렇게 세 개가 넓게 분포했었습니다. 소래포구는 남동갯벌에 속합니다. 김포갯벌에 비하면 규모가 작고 육지 깊숙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소래포구와 가까운 호구포는 서해바다에서 승기천을 따라 내륙으로 길게 들어가던 긴 갯골의 입구였습니다. 개발 전까지만 해도 현재 남동구청 근처까지 바닷물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에는 외국의 침

입을 막기 위해 포대를 만들어 방비하기도 했었습니다. 개항 후 포대는 없어지고 1970년대까지 남동역에서 논현역에 이르는 넓은 갯골과 갯벌은 우리나라 최대 염전지대가 되었습니다. 과거 남동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은 수인선 협궤열차를 타고 곳곳으로 뿔어 나갔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남동갯벌은 정부가 수도권 공장을 옮기기 위해 남동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공업 용지로 변했습니다. 지금 소래포구는 병풍 같은 아파트 단지들에 둘러싸여 버렸습니다. 그전까지 소래포구 어시장은 전국 3대 젓갈시장으로 유명했었습니다. 분만 아니라 소래포구의 주민들은 예로부터 바닷물이 드나듦에 따라 맛조개, 바지락 등 조개류, 새우와 꽃게 등 갑각류, 그리고 갯지렁이와 낙지 같은 두족류를 골고루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숭어, 농어, 꼴뚜기, 서대, 복어, 박대 등 잡어도 자주 잡혔었다고 합니다.



# 사업 운영

The background is a complex geometric composition. It features a large yellow area with a fine dotted pattern. A white dotted area is located in the bottom right corner, separated from the yellow by a diagonal line. Several thin white lines radiate from a point in the lower right, extending across the yellow area. A prominent dashed white line runs diagonally from the top right towards the bottom left, passing through the yellow area and ending in the white dotted area.



## 특별회차 남동 온 스테이지 e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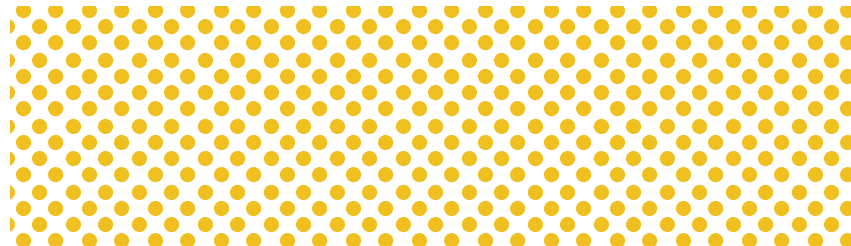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남동구 관내 유휴공간에서 기획공연을 운영하여 문화적 공간 재생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이나 청년 계층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래포구에서 해당 계층 특화 문화공연을 운영하여 장소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 추진내용 |

행사일시	2023년 6월 3일(토) 18시 30분 ~ 20시
행사대상	4세 이상 누구나
참석자	197명
행사장소	소래포구전통어시장 하늘정원
행사내용	청소년·청년층 특화 기획공연
출연진	스텔라장, 한울
만족도	4.85점(5점 만점)
협력부서	남동구 생활경제과



“2017년 소래포구 대규모 화재 이후  
2020년도 새로 지은 소래포구전통어  
시장의 옥상정원에서 진행된 이번 공  
연은 그야말로 ‘소래포구소리원’ 공연  
이었다. 초여름 저녁의 저물어가는 해  
를 바라보며 진행된 <남동 온 스테이지  
ep.1>은 신선한 바람을 타고 불어오는  
바다의 비릿한 향기가 음악과 어우러져  
소래포구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이었다.”  
공연 사이 아티스트의 이야기에 장단을  
맞춘 갈매기의 소리가 관객의 호응을 대  
변하는 듯했다.”

류지민 과장(마포문화재단)

“변잡스러운 어시장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바다의 멋스러움과 바다를 배경으로  
한 공간이 주는 색다름이 출연진의 음식과 맞물려 이색적 경험을 제공했다. 이  
공연을 통해 일상 속 공간도 얼마든지 문화적 공간으로 재생될 수 있다는 가능  
성을 보여줬다.”

한정연 팀장(평택시문화재단)





## 가족 대상 회차 소래바다 우리 가족 여행 1회차

### | 추진내용 |

행사일시	2023년 10월 22일(일) 14시 ~ 19시 30분
행사대상	4세 ~ 중학생 자녀를 둔 가족
참석자	32명(9가족)
행사장소	소래역사관, 새우타워, 남동소래아트홀,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만족도	4.6점(5점 만점)
사업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사업주관	남동문화재단
협력부서	남동구 문화관광과·생활경제과, 재단 지역문화진흥팀
후원단체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상인회

### | 추진일정 |

시 간	주 제	행사장소	행사내용
14:00~15:00(60)	역사	소래역사관	역사탐방
15:00~15:10(10)	도보 이동(소래역사관 → 새우타워)		
15:10~16:10(60)	복합	새우타워	그래피티 아트 체험
16:10~16:20(10)	차량 이동(새우타워 → 소래아트홀)		
16:20~17:20(60)	시각예술	남동소래아트홀	전시 관람, 전통염색 체험
17:20~17:30(10)	차량 이동(소래아트홀 → 소래포구전통어시장)		
17:30~19:30(120)	공연예술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소래포구 해산물 요리가 함께하는 음악회



“소래포구가 가진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적극 활용한 프로그래밍으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별도 행사를 마련한 점이 인상적이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아보였고, 문화를 통해 가족 간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소래포구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우수 프로그램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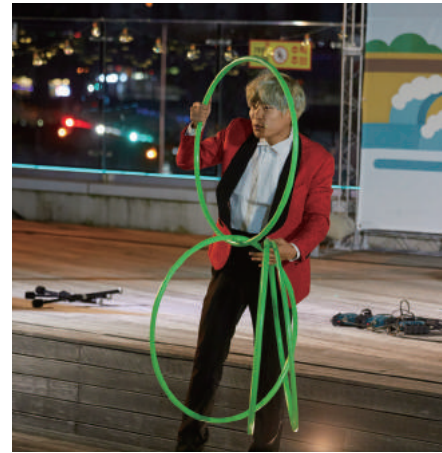
지영림 프로듀서(세종문화회관)



#### | 참석자 명단 |

민서네 가족 : 전영재님, 여현주님, 전호윤군, 전민서양  
 민규네 가족 : 조원국님, 온정은님, 조민규군  
 우혁네 가족 : 성영수님, 김윤정님, 성우혁군  
 소은네 가족 : 유준혁님, 박성진님, 유소은양  
 은우네 가족 : 정희석님, 성승희님, 정은우군  
 예원네 가족 : 최경석님, 박지혜님, 최예원양  
 서윤네 가족 : 박영진님, 김은선님, 박지환군, 박서윤양  
 이안네 가족 : 김상수님, 박다혜님, 김로이군, 김이안군  
 진아네 가족 : 유정님, 김태양님, 유호준군, 유진아군





## 가족 대상 회차 소래바다 우리 가족 여행 2회차

### | 추진내용 |

행사일시	2023년 10월 29일(일) 14시 ~ 19시 30분
행사대상	4세 ~ 중학생 자녀를 둔 가족
참석자	32명(8가족)
행사장소	소래역사관, 새우타워, 남동소래아트홀,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만족도	4.82점(5점 만점)
사업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사업주관	남동문화재단
협력부서	남동구 문화관광과·생활경제과, 재단 지역문화진흥팀
후원단체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상인회

### | 추진일정 |

시 간	주 제	행사장소	행사내용
14:00~15:00(60)	역사	소래역사관	역사탐방
15:00~15:10(10)	도보 이동(소래역사관 → 새우타워)		
15:10~16:10(60)	복합	새우타워	그래피티 아트 체험
16:10~16:20(10)	차량 이동(새우타워 → 소래아트홀)		
16:20~17:20(60)	시각예술	남동소래아트홀	전시 관람, 전통염색 체험
17:20~17:30(10)	차량 이동(소래아트홀 → 소래포구전통어시장)		
17:30~19:30(120)	공연예술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소래포구 해산물 요리가 함께하는 음악회



“소래포구의 매력을 시민게 알리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과 다채로운 문화예술 장르를 엮은 기획이 훌륭하다. 지역 문화재단의 설립 당위성에 대해 시민게 인정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사업이라 생각된다.”

진나래 겸임교수(인하대학교)



| 참석자 명단 |

아성네 가족 : 이호형님, 서나영님, 이아성군

지안네 가족 : 심상효님, 김소연님, 심재용군, 심지안양

민관네 가족 : 심대성님, 민경주님, 심지영양, 심민관군

이언네 가족 : 라종길님, 박진주님, 박옥희님, 라종민님, 라윌양, 라이언군

나연네 가족 : 권순재님, 김하얀님, 권대현군, 권나연양

이안네 가족 : 송남식님, 한지혜님, 송이안군

현이네 가족 : 윤재영님, 권예원님, 윤건군, 윤현양

예아네 가족 : 황용구님, 우상례님, 황예서양, 황예아양





## 가족 대상 회차 소래바다 우리 가족 여행 3회차

### | 추진내용 |

행사일시	2023년 11월 4일(토) 14시 ~ 19시 30분
행사대상	4세 ~ 중학생 자녀를 둔 가족
참석자	33명(9가족)
행사장소	소래역사관, 새우타워, 남동소래아트홀,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만족도	4.77점(5점 만점)
사업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사업주관	남동문화재단
협력부서	남동구 문화관광과·생활경제과, 재단 지역문화진흥팀
후원단체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상인회

### | 추진일정 |

시 간	주 제	행사장소	행사내용
14:00~15:00(60)	역사	소래역사관	역사탐방
15:00~15:10(10)	도보 이동(소래역사관 → 새우타워)		
15:10~16:10(60)	복합	새우타워	그래피티 아트 체험
16:10~16:20(10)	차량 이동(새우타워 → 소래아트홀)		
16:20~17:20(60)	시각예술	남동소래아트홀	전시 관람, 전통염색 체험
17:20~17:30(10)	차량 이동(소래아트홀 → 소래포구전통어시장)		
17:30~19:30(120)	공연예술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소래포구 해산물 요리가 함께하는 음악회



### | 참석자 명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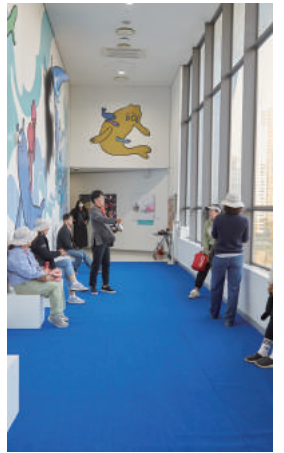
서연네 가족 : 김필중님, 홍정민님, 김선호군, 김서연양  
 시향네 가족 : 고미화님, 심영애님, 이선아양, 이시향양  
 시은네 가족 : 안혁님, 문윤희님, 안정우군, 안시은양  
 이준네 가족 : 최정수님, 이설희님, 최이준군  
 해별네 가족 : 양지현님, 윤나리님, 양해별양  
 화랑네 가족 : 이주환님, 김수진님, 이채랑양, 이화랑군  
 하준네 가족 : 김지영님, 차민아양, 차하준군  
 준환네 가족 : 설재원님, 양현희님, 설준서군, 설준환군  
 솔이네 가족 : 이소희님, 이노아님, 오율양, 박솔양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 구성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족을 대상으로 했으며, 나아가 가족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대부분의 가족 참여 프로그램이 아이에 집중하여 부모가 소외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프로그램은 그런 문제점도 잘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방문식 차장(평택시문화재단)









성인 대상 회차  
소래바다  
나를 위한 여행 1회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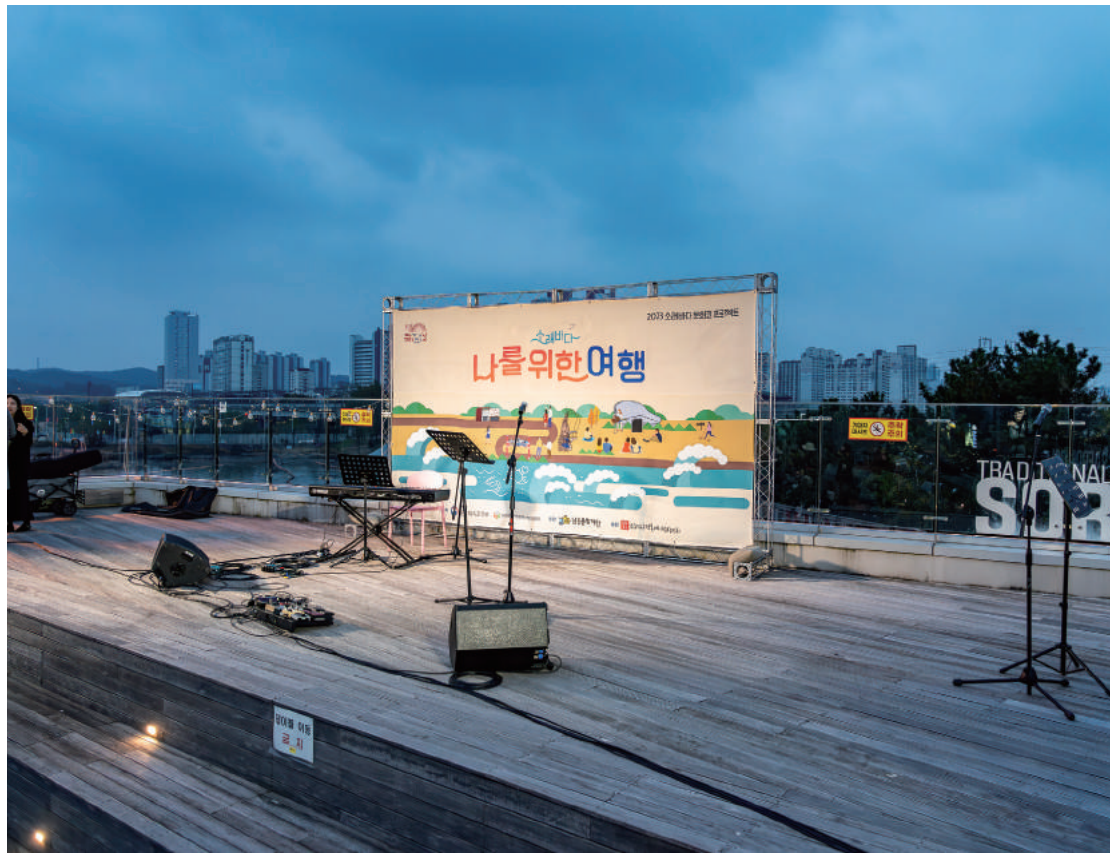
## | 추진내용 |

행사일시	2023년 10월 25일(수) 14시 ~ 19시 30분
행사대상	성인 누구나
참석자	26명
행사장소	소래역사관, 새우타워, 남동소래아트홀,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만족도	4.96점(5점 만점)
사업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사업주관	남동문화재단
협력부서	남동구 문화관광과·생활경제과, 재단 지역문화진흥팀
후원단체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상인회

## | 추진일정 |

시 간	주 제	행사장소	행사내용
14:00~15:00(60)	역사	소래역사관	역사탐방
15:00~15:10(10)	도보 이동(소래역사관 → 새우타워)		
15:10~16:10(60)	복합	새우타워	조용한 음감회
16:10~16:20(10)	차량 이동(새우타워 → 소래아트홀)		
16:20~17:20(60)	시각예술	남동소래아트홀	전시 관람, 전통염색 체험
17:20~17:30(10)	차량 이동(소래아트홀 → 소래포구전통어시장)		
17:30~19:30(120)	공연예술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소래포구 해산물 요리가 함께하는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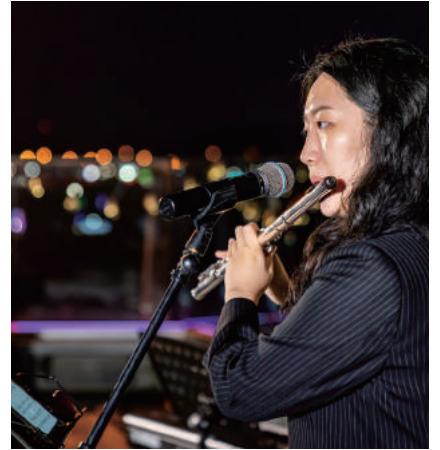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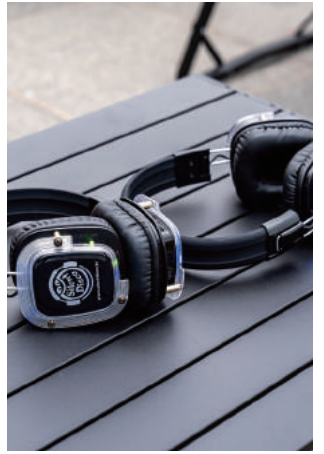


#### | 참석자 명단 |

이미진님, 최윤아님, 이대범님, 김은순님, 윤현정님  
전영태님, 전태현님, 윤지섭님, 손경주님, 김현숙님  
박은희님, 진주희님, 정시영님, 신금식님, 황진아님  
오유림님, 주황연님, 김정순님, 김미자님, 이복희님  
이은선님, 안춘자님, 심정순님, 정태호님, 김현아님  
김미자님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는 소래포구를 배경으로 다양한 장소를 이동하며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로 매우 부각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서정미 외래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 성인 대상 회차 소래바다 나를 위한 여행 2회차



### | 추진내용 |

행사일시	2023년 11월 1일(수) 14시 ~ 19시 30분
행사대상	성인 누구나
참석자	21명
행사장소	소래역사관, 새우타워, 남동소래아트홀,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만족도	5점(5점 만점)
사업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사업주관	남동문화재단
협력부서	남동구 문화관광과·생활경제과, 재단 지역문화진흥팀
후원단체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상인회



### | 추진일정 |

시 간	주 제	행사장소	행사내용
14:00~15:00(60)	역사	소래역사관	역사탐방
15:00~15:10(10)	도보 이동(소래역사관 → 새우타워)		
15:10~16:10(60)	복합	새우타워	조용한 음감회
16:10~16:20(10)	차량 이동(새우타워 → 소래아트홀)		
16:20~17:20(60)	시각예술	남동소래아트홀	전시 관람, 전통염색 체험
17:20~17:30(10)	차량 이동(소래아트홀 → 소래포구전통어시장)		
17:30~19:30(120)	공연예술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소래포구 해산물 요리가 함께하는 음악회



“지역 문화관광자원 개발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문화예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일 것이다. 이 사업의 특징점은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선적으로 결합한 기획과 프로그램에 수혜자의 만족도를 확보했다는 점과, 어시장 상인회가 직접적인 역할로 참여토록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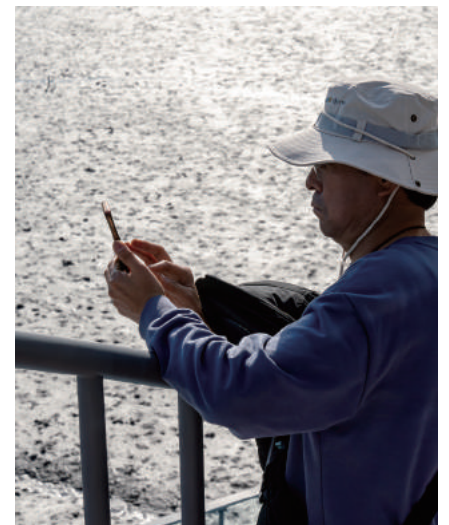
방문식 차장(평택시문화재단)



| 참석자 명단 |

안인선님, 이정자님, 이용주님, 염성숙님, 박광선님  
조영란님, 서보람님, 우주연님, 조길자님, 조미희님  
유희영님, 전한역님, 김인자님, 이은숙님, 이영심님  
문지영님, 변익숙님, 오두석님, 임종순님, 서명옥님  
송의성님





## 성인 대상 회차 소래바다 나를 위한 여행 3회차

### | 추진내용 |

행사일시	2023년 11월 8일(수) 14시 ~ 19시 30분
행사대상	성인 누구나
참석자	26명
행사장소	소래역사관, 새우타워, 남동소래아트홀,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만족도	4.9점(5점 만점)
사업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사업주관	남동문화재단
협력부서	남동구 문화관광과·생활경제과, 재단 지역문화진흥팀
후원단체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상인회

### | 추진일정 |

시 간	주 제	행사장소	행사내용
14:00~15:00(60)	역사	소래역사관	역사탐방
15:00~15:10(10)	도보 이동(소래역사관 → 새우타워)		
15:10~15:30(20)	복합	새우타워	소래바다 풍경 감상
15:20~15:30(30)	차량 이동(새우타워 → 소래아트홀)		
15:30~16:20(50)	복합	남동소래아트홀	무소음 행사(조용한 음감회)
16:20~17:20(60)	시각예술		전시 관람, 전통염색 체험
17:20~17:30(10)	차량 이동(소래아트홀 → 소래포구전통어시장)		
17:30~19:30(120)	공연예술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소래포구 해산물 요리가 함께하는 음악회





“지역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한다는  
사업 목적에 맞게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  
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프로그래밍했다.  
향후 연령대별 관심사별로 세분한 발전  
된 사업의 운영이 기대된다.”

지영림 프로듀서(세종문화회관)

#### | 참석자 명단 |

문유진님, 전미애님, 채지인님, 성지현님, 이인숙님  
곽동숙님, 김태순님, 권민주님, 송은주님, 정경훈님  
박훈정님, 김순곤님, 김하나님, 김의숙님, 김남진님  
원태윤님, 김정인님, 김경택님, 한만호님, 전상건님  
인상윤님, 인한휘님, 차순향님, 김채언님, 이지영님  
이현경님



# 참여자 인터뷰





김영란 셰프

먼저 본인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인근에 자리 잡아 백령도횃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란이라고 합니다. 소래포구와 인연을 맺은지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셰프님은 고향이 어딘가요? 소래포구에 있는 횃집인데 '백령도횃집'이라 이름 지으니 특이하게 느껴지네요?

제 고향이 백령도예요. 백령도에서 나고 자랐죠. 고등학교까지는 백령도에 있었고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물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인천 주안동에서 조그만 선물가게도 하고 옷가게도 했어요. 그러다 '97년 IMF 시절에 소래포구에 있는 지인으로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좌판을 시작했죠. 그렇게 10년쯤 지났을까, 당시 수산물 도매업을 하던 남편을 만나고, 그와 함께 <소래막회>를 인수해 <백령도횃집>을 연지 15년이 지났네요. 횃집 이름은 아마 제 고향을 떠올려 지었던 것 같아요.

셰프님은 본래 다른 일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수산물 요리를 시작하게 되셨고 소래포구에 자리 잡게 되셨나요?

우연한 기회와 선택이 어느덧 자신의 길이 될 때가 있죠. 지인 소개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던 소래포구 어시장 좌판 일이 저한테 맞더라고요. 백령도, 소래포구, 둘 다 바닷가이기 때문일까요? 물고기 손질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남들보다 잘했어요. 처음부터 회뜨기도 잘 적응하고, 요리도 잘 했던 것 같아요. 회뜨기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속도와 정확성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활어회를 먹는 식문화죠. 그래서 바다에서 갓 잡은 물고기의 신선도를 지키기 위해 산 채로 빠르게 손질해야 해요. 껍데기를 벗겨 지느러미와 내장을 빼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예쁘게 잘라서 손님에게 내놓아야 하죠. 재능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관리하던 <어시장 좌판>, <백령도횃집>, 그리고 올해 시작한 <꽃게 먹고 갈래?> 포함 세





개 가게를 남편과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소래포구에 제법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백령도횃집 말고도 다른 사업소도 갖고 계시네요. <꽃게 먹고 갈래?>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꽃게 먹고 갈래?〉는 2020년 다시 만들어진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 올해 9월 무렵 개소했어요. 여기는 개인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 만든 것은 아니예요. 〈소래후예〉라는 협동조합(소래포구전통어시장협동조합) 사업의 거점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서는 평소 요식업을 하지만 소래포구 어시장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일, 그리고 최근 생긴 남동문화재단의 일도 함께 하고 있어요. 조합원은 부회장인 저와 안광균 회

장남을 포함해 5명 정도예요. 회장님은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고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죠. 함께 노력해서 소래포구가 단순 재래시장에서 관련 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법〉)의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은 것은 꽤 거라고 생각해요.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외적인 조건도 갖추어야 하지만 상인교육이나 심사 등 상인들과 협력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협동조합에서 요식업을 하는 사람은 저 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꽃게 요리에 자신 있고, 상인들에 대해 잘 알고, 사람 만나기 어려워하지 않아요. 제 장점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협동조합이나 상인회, 그리고 남동문화재단의 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소래포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시네요. 최근 남동문화재단과 <2023년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를 함께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참여하고 계신가요?**

남동문화재단이 올 초에 생겼던가요? 재단이 설립된 것은 알고 있었어요. 불과 몇 달 전쯤 소래바다 문화길 사업 담당자를 만났죠.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저들이 말하는 문화사업이 우리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까? 최근 소래포구 바가지 논란에 급격하게 나빠진 어시장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까? 사실 공연이나 전시 같은 문화예술은 소래포구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지역사회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며 프로그램 저녁 일정의 셰프로서 참여하기로 했죠.

첫날 사업 프로그램을 참여한 이후 제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됐어요. 저는 공연이 곁들여진 음식이 해질녘 소래포구와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어요. 달 뜬 저녁의 은은한 불빛과 잔잔한 음악소리, 사람들 사이에 제가 만든 요리가 나오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바라던 품격 있는 먹거리는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함께할 때 더욱 감미롭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전에는 어떤 모습일지 몰랐어요. 상인회나 협동조합에서 시식회를 하더라도 공연은 없었으니까요. 가족 단위 사람들, 친구와 연인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소래포구에 모여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로 함께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재단의 이번

프로그램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재단의 기획과 사람들의 호응도를 보니 이미 그럴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남동문화재단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시네요. <2023년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셰프님이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코스요리를 구성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제가 맡은 프로그램은 〈해산물 요리가 함께하는 공연〉이에요. 때론 어쿠스틱, 때론 재즈, 저녁 공연과 함께하는 요리를 참여자들에게 대접하는 거죠. 이때를 위해서 코스요리를 개발했습니다. 활어회(광어), 활어회 초밥, 칠리새우, 랍스타가리비 버터구이, 조개파스타, 간소새우, 꽃게찜, 꽃게탕 등 소래포구에서 구할 수 있는 수산물로 이루어진 요리들이 연이어 나오죠. 코스 이름은 〈지중해 코스〉예요. 재단 담당자가 추천해 준 이름이에요.

우리 생각의 지중해는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찾는 아름다운 바닷가의 풍경이 좋아요. 마침 제가 생각하는 소래포구가 추구할 긍정적인 이미지와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재단 사업이 아니라도 앞으로 〈지중해 코스〉는 계속 이어 나갈 생각이예요. 철마다 요리 메뉴들은 조금씩 바뀌겠지만 재단 덕분에 신창식 선생님 같은 스타 셰프를 만나 교류도 가질 수 있

었고, 먹거리뿐 아니라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과 함께한 소회와 앞으로 소래포구의 발전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무엇보다 재단이 소래포구 어시장과 상인들에 대해 진지하게 상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좋았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의견을 묻고,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더라고요.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에 제가 셰프로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지중해 코스>라는 이름을 제안한 것도 그렇고요.

최근 제가 생각하는 소래포구의 문제점은 소래포구 바가지 요금으로 불거진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상인회와 협동조합에서는 상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불친절하거나 바가지 요금을 강요하는 어시장 상인들이 있으면 영업정지와 친절교육을 시키기도 했죠.

그런데 때로 이미지는 생각하지 못한 데서 개선되는 것 같아요. 재단의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가 그렇죠. 소래포구에서 먹거리뿐 아니라 볼거리와 즐길 거리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이미지가 쌓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긍정적인 인상이 모여 순환하면 어느새 소래포구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덮이게 되겠죠. 제가 처음 생각했던 재단 사업에 대한 반신반의처럼요. ■■■





안광균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상인회장

먼저 본인에 대한 소개와 소래포구와의 인연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상인회장 안광균입니다. 현재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래 나고 자란 곳이 인천은 아닙니다. 경기도 발안(화성시)에서 태어나 7살 무렵 부모님을 따라 이사 왔거든요. 어머니는 그때부터 소래포구 어시장에 좌판을 열었어요. 사실 소래포구와의 인연은 더 거슬러 올라가요. 한국전쟁 때 외할머니께서 황해도에서 피난 오셔서 자리 잡은 곳이 소래포구였거든요. 외할머니가 여신 좌판을 어머니가 결혼 하시면서 이으셨죠. 2012년 무렵 저도 어시장에 자리 잡았으니 3대째 소래포구와 인연을 맺고 있네요.

말씀하신 대로 소래포구와 회장님의 인연이 깊군요. 애정도 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상인회 회장직을 맡게 되신 건가요?

처음부터 회장직을 맡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 좌판을 연 2012년 무렵은 상인회 소속도 아니었죠. 그때는 어머니 일을 도와드리기 위한 이유가 컸어요. 그 전은 대학 졸업 후 학사장교로 6년간 군생활을 했고, 인천 자유무역지대에서 6년간 다른 일을 했죠. 되돌아보면 소래포구전통어시장 화재 사건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시장 복구와 대응을 위해 생겨난 비상대책위원회에 참

여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 당시 주변 다른 전통시장 사례를 찾아보니 정부와 지역자치단체 지원을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처음 상인회 일을 시작할 무렵 소래포구 어시장은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지원 자격요건이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 12월 22일 소래포구 어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등록하는데 일조하고, 상인회장직을 맡고 나서는 중앙정부와 인천 남동구 등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함께 하고 있어요. 다시 생각해 보면 어머니 일을 돕다가 제 일이 되고, 우리를 둘러싼 일들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참여가 저를 이끈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상인회 회장으로서 바람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회장직을 맡게 된 시기는 작년 3월 무렵이에요. 그간 어시장 일에 관심 갖고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이끌어 나가기 시작한 것은 얼마되지 않았죠. 회장으로서의 제 바람은 어시장 상인들이 소래포구에서 생업을 계속 이어 나가고, 소비자들은 신선한 해산물을 얻어갈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소래포구를 제일 먼저 떠올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소래포구는 수도권과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포구거든요. 노량진도 꽃게를 팔지만 그쪽은 일반 시내에서 해산물을 팔아요. 소



래포구는 고깃배가 인근에 직접 접안해서 팔아요. 활어나 생새우를 어시장 상인들이 어부로부터 직접 사서 바로 고객들에게 판매한다는 거죠. 당연히 수도권 인근에서 해산물 신선도로 따라올 곳이 없어요.

회장으로서 제 역할은 어시장 상인들이 변화에 적응하고 고객 응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어시장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상인들에게는 생업의 터전, 고객들에게는 철마다 다른 싱싱한 활어를 맛볼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소래포구 어시장에 큰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때 상황과 이후 어떤 일이 있었나요?**

소래포구 어시장에 있었던 큰 사건은 아무래도 2017년의 어시장 화재가 있겠죠. 현재 건물이 자리 잡은 이곳이 본래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었죠. 여기 좌판 332개 중 200여 곳이 불탔어요. 이 주변을 살펴보면 사실상 1,000여 개의 좌판이 있지만 그래도 큰 피해였죠. 지금의 모습을 회복하기까지 3년이 넘게 걸렸으니까요.

2010년대 중반에는 소래포구 어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인근에서 싱싱한 활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소래포구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모인 파라솔 장사나 무허가 좌판들이 성행했어요. 어시장 시설은 노후되어 가는데 좌판이 뽁뽁이 선거죠. 당시 어시장 내에 정전이나 누전이 자주 발생했는데 당장 장사할 마음들에 임시방편으로 해결해 나가다가 사건이 터졌죠. 어느 좌판인지 파라솔에서 불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큰 일이 났어요.

이후 어시장 복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인회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때 소래포구 어시장이 있던 곳이 그린벨트라는 것을 알게 되

었어요. 많은 상인들이 그린벨트 지역에 무허가 장사를 하고 있었고 어시장 내부는 일부 불법 건축물들이 있었던 거죠. 이 문제로 행정기관과 협력해 처리하는데 3년 9개월이 걸렸어요. 그동안 상인들은 파라솔을 치고 영업을 했죠. 지금은 보시다시피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예전보다 환경이 많이 나아졌어요.

**최근 소래포구 어시장과 관련하여 여론이 좋지 않은 것 같더군요. 뉴스와 소셜미디어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리던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최근 소래포구를 둘러싼 안 좋은 이미지가 뉴스와 SNS를 통해 확산됐었죠. 당

시 경북의 어떤 도시의 지역축제에서 전통과자 한 봉지에 7만원에 팔면서 비난이 많을 때였거든요. 뒤이어 소래포구 어시장을 찾았던 소비자들이 바가지요금, 바꿔 치기, 눈금 속이기 등을 온라인에서 성토했으면서 여론이 안 좋아졌어요. 게다가 우리 상인회에서 상인들과 고객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석고대죄’를 하던 무렵, 이른바 ‘꽃게 다리 사건’이 또 터졌죠. 그때 소래포구 어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죠.

사실 석고대죄를 언론에 띄울 생각은 없었어요. 마침 구청 홍보관에서 취재를 하던 것을 다른 언론사에서 받아 적은 것이 다시 이슈가 되고 소셜미디어로 더 확산된 거죠. 상인들도 뉴스나 소셜미디어를 보잖아요. 다들 많이 낙담하고 불안해했어요. 다시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 삶의 터가 망가질까 봐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싶었어요.

결국 어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불편한 감정을 느끼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장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예전에는 좌판에서 고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부르거나 흥정해서 이기면 좋은 거였어요. 어쨌든 이득은 남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 어시장을 찾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시장 화재로 3년 넘게 제대로 장사를 못 하는 동안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소셜미디어가 발달하고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죠. 그런데 아직 대부분 상인들은 이런 변화를 잘 몰랐어요.

**소래포구 어시장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나쁜 여론과 상인들의 인식이 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시장에서 계속 장사하려면 고객들의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소셜미디어로 경험을 공유해요. 일부 상인들이 문제라고 해도 어시장 전체의 이미지가 어느 순간 ‘꽃게 다리’ 하나로 확 나빠질 수 있죠. 사실 다리 빠진 꽃게는 신선도랑 많이 상관없어요. 살이 얼마큼 찔는지 무게로 달아 보는 게 오히려 맞거든요. 꽃게 다리는 고깃배의 그물에 걸릴 때도, 운반할 때도 잘 빠져요. 그런데 이런 이미지의 파급력이 너무 큰 시대가 되어 버린 거죠.

제가 요즘 상인회장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상인들의 인식 개선이에요. 그래서 상인들 대상 고객 응대 교육을 강화하고 상별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죠. 물론 예전에도 상별위원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만 동료이자 이웃의 정으로 농친 경우가 많았죠. 저는 상별위원회의 고객 응대 규정과 벌칙 실행을 강화했어요. 불친절로 1차 신고될 시 서면경고, 2차는 최대 30일까지 영업정지를 시키고 있어요.

누군가는 영업정지 며칠이 무슨 강제력이 있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장사하려고 모인 상인들이고, 이들의 주 수입원은 주말 장사예요. 그런데 상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영업정지는 주말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

인들도 손해가 큰 거죠. 그렇다고 상인회를 탈회하는 부담도 만만치 않고요. 물론 상인들끼리 서로 감시하는 것 같아 불편한 기색도 보여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 장사를 하려면 고객들이 계속 찾을 만한 곳이 되어야 하잖아요. 저는 계속 이런 방식을 유지해 나갈 거예요. 제가 욕을 먹더라도 더 큰 목적을 위해 이끌어 나가는 것이 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소래포구 어시장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어시장의 특별한 문화나 행사도 중요할 것 같아요.**

소래포구 어시장과 관련된 문화행사로 는 소래포구 축제를 들 수 있겠네요. 올해로 23회를 맞이했으니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도 벌써 25년이나 되었어요. 수도권 인근에서 해산물 먹거리를 주제로 지역축제를 여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이번에 날씨도 좋지 않았지만 사흘간 50만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대표 지역축제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소래포구 축제는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전까지 있었던 6개의 민간단체가 운영했어요. 시기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 남동구청으로 주관처를 옮기고, 올해부터는 새로 생긴 남동문화재단에서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재단이 맡고 나서 좀 달라진 것도 같아요. 축제에서 공연이야 항상 하는 거라 많은 감흥은 없었지만 여기저기 조명도 달고, 콘텐츠도 알차고, 상인들을 많이 참여시키려는 측면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어시장 상인들이 나온 다큐멘터리 영상을 축제기간 동안 상영한 것은 기억에 남네요. 상인들 반응도 좋았고 벌써 내년 축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래포구 어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인할 때마다 저와 상인들이 낙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가 더욱 반가웠던 것 같아요. 당장 바뀌진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전체적인 이미지 쇄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이번에 남동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3년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남동문화재단의 사업은 상인들의 참여에 특히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부분을 좋게 보고 있어요. 물론 올해 소래포구 축제 영상제처럼 상인들이 출연하는 영상은 흥행에는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여부보다 기획 자체가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대상은 오히려 상인들인 거죠. 결국 어떤 지역 사업이든 지역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오래 갈 수 있거든요. 저도 상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단의 방침과 서로 통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관광객들을 모아 소래역사관, 소래타워, 소래아트홀 등 최근에 생긴 소래포

구의 랜드마크를 답사하는 프로그램 같더라고요. 사업 담당자가 찾아와서 부탁했어요. 소래포구전통어시장도 마지막 답사지로 포함할 예정인데 참여를 바란다고. 소래포구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요리를 관광객들에게 대접하고 싶다고요. 코스 요리 이름도 '지중해 코스'로 제안하더라고요. 최근에 만든 협동조합("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협동조합")에서도 논의해 봤어요. 생각 외로 조합원들의 참여 열의가 높았어요. 본래 4~5개 해산물 요리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다들 요리에 대한 자부심과 욕심이 있는지 8개 요리를 관광객들에게 대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이 근방의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어시장 부근의 소래철교도 관광객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낮에는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맨발 산책하다가 밤에는 소래철교의 야경을 보면 좋을 것이라 생각해요. 특히 어시장과 아파트에서 나오는 불빛을 배경으로 가끔 철교 밑 바다를 가르는 고깃배의 불빛이 지나거든요. 젊은 세대한테는 경험소비가 유행이라면서요. 소래포구의 야경은 충분히 와서 사진으로 남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재단에서 소래포구 어시장을 먹거리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채워주길 바라요.

**소래포구 어시장이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나요?**

소래포구에 온 고객들이 싱싱한 해산물을 기분 좋게 사가는 모습을 그려요. 좋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소래포구를 계속 찾겠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서 생계가 활짝 핀 우리 상인들의 미래를 꿈꿔요. 그러기 위해 회장으로서는 고객들이 상품과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인들과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재단과 함께 소래포구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려고 해요. 이 또한 제가 그리는 모습을 이루도록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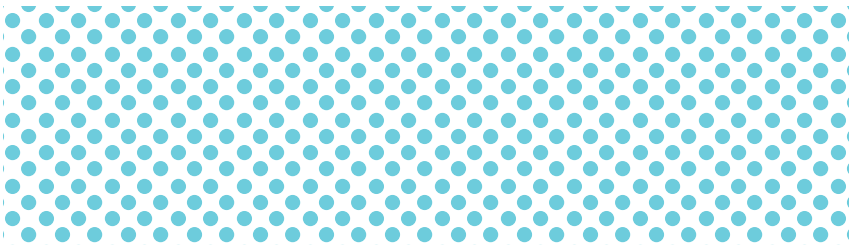


# 참여 예술인 인터뷰





## 공연예술가 아침의 트리오



먼저 <아침의 트리오> 팀과 본인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아침의 트리오>라는 이름은 모두에게 찾아오는 소중한 아침 같은 가치를 전하는 앙상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매일 맞이하는 아침이니 그 익숙함에 소중함을 잊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상에서 접하는 소중함을 음악으로 일깨워주는 팀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서 지은 이름이에요.

<아침의 트리오>는 2020년 4월에 창단했고, 피아니스트 1명, 플루티스트 2명, 그리고 전속 작곡가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저는 피아노를 담당하고 있어요. 플루티스트는 전해현, 박지원, 작곡가는 옥지은 씨가 맡고 있어요.

<아침의 트리오>는 창단 전부터 멤버들과 함께 한 시간이 길어요. 플루티스트 전해현 씨는 저와 2011년 인천시 음악영재에서 처음 만났어요. 2013년 인천예술고등학교에 같이 입학했고, 작곡가 옥지은 씨는 저와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지원 씨와 전해현 씨는 이화여자대학교 동문으로 만나서 함께 활동을 해 왔어요.

다들 인연이 깊고 소울메이트처럼 학창시절 계속 붙어 다녔어요. 그러면서 당 시도 우리 나중에 커서 어른 되면 같이 음악하고 연주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했어요. 제게 <아침의 트리오> 멤버들은 결국 친구로 시작해서 꿈을 함께 하는 인생의

동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아침의 트리오>에서 추구하는 음악 활동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팀 구성이 실내악 앙상블에서 흔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아침의 트리오>는 매일 찾아오는 아침처럼 익숙한 음악을 새로운 편곡으로 들려주려고 해요. 관객은 내가 알고 있던 익숙한 음악이라도 플루트 두 대와 피아노 앙상블의 버전으로 들었을 때 색다른 느낌으로 전달될 수 있거든요. 물론 기본적인 어려움은 있어요. 보통 실내악 편성 중 피아노 트리오 혹은 피아노 콰르텟 같은 구성을 위한 곡들은 현존하는 작품들이 많죠. 그런데 <아침의 트리오>처럼 두 대의 플루트와 피아노로 구성된 앙상블을 위한 곡 레퍼토리는 많지 않거든요. 아마 저희와 같은 문제를 겪는 팀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침의 트리오>는 새로운 레퍼토리의 창작을 주도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예술활동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다들 알다시피 코로나19 시기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공연이 어려울 때였죠. 프리랜서로 주로 활동하던 개인들은 연대가 필요했어요. 혼자서 어려운 시기를 버티기 힘든 때였거든요. 개인적으로

겪었던 어려움도 공연 자체가 취소되거나 공연이 잡히더라도 모객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레슨도 거의 끊겼죠.

그렇게 다들 어려운 시기에 급격하게 앙상블 팀이 많이 생겨났어요. 한편으로는 상생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아침의 트리오>도 코로나19 시기에 결성됐거든요. 팀원들끼리 의지하면서 서로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연주자들이 그랬겠지만, 코로나19가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는 시기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클래식 버스킹은 <아침의 트리오>가 추구하는 가치와도 연관이 있어요. 거리에서 만나는 클래식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일상 속 음악 선물을 전하는 거죠. 처음에는 클래식 버스킹 공연이 없을 때 걱정도 많았지만 지금은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졌어요.

**코로나19 시기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요새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올해 봄철이었던 것 같아요. 남동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남동 버스킹 블라썸> 공연에서 느꼈던 일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멈춰 서서 공연을 보시더라고요.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그 속에 연주 중인 우리, 서로 호흡을 맞추며 웃고 있는 모습을 문

득 발견했을 때, '아... 코로나가 다 끝났구나.'라고 느꼈어요.

'21년, '22년도 여러 공연을 했지만 아무래도 거리두기로 인해 삭막함이 느껴졌고, 크고 작은 어려움이 항상 있었거든요. 사회적 거리유지 지침 등 여러 제약들 때문에 여건도 좋지 않았죠. 그래서 야외공연, 버스킹 공연을 활발하게 시도했던 것 같아요.

올해 가을에 특히 많은 공연을 진행했어요. 주로 인천, 서울, 경기 지역에서의 연주는 많았지만, 더 먼 지역에 가서도 우리의 음악을 전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대구, 부산, 춘천에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공연을 다녀왔어요.

지역주민들도 새롭게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연주 여행을 하는 기분도 들었고, 멀리서 온 저희를 환대해 주셨던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우리 창작곡도 널리 알릴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클래식 버스킹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럼 야외공연에서 연주하는 곡은 직접 작곡하신 건가요? 팀 활동으로 어떤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아침의 트리오> 팀의 목표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버스킹을 하면서 느꼈던 의미와도 연관이 있죠. 저는 우리 음악을 더 많은 지역에 알리고 싶어요. 인



천과 서울·경기를 넘어 전국에, 더 나아가 세계에 알리고 싶은 포부가 있어요. 그러려면 연주 실력은 물론 더 많은 연구와 탐색을 갖추어야겠죠.

그래서 꾸준히 창작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팀원들과 함께 환상곡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2020년에는 7개의 악기를 위한 캐롤 환상곡, 2021년에는 7개의 악기를 위한 아리랑 환상곡, 2022년에는 8개의 악기를 위한 세계민요 환상곡을 공개했죠. 두 대의 플루트와 피아노, 그리고 다채로운 특수악기를 활용해 연주하는 창작곡들이었어요. 작곡가인 옥지은 씨의 역할이 커요. 꾸준히 레퍼토리를 늘려가고 공개하며 앙상블을 위한 음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인천 예술가로서 남동문화재단의 사업에도 많이 참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재단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

남동문화재단과는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남동 버스킹 블라썸>뿐만 아니라, <남동공연예술페스타(NPAF: Namdong Performing Arts Festa)>에서 메인공연과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하고, 이번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에도 공연팀으로 참여했죠. 사업 특성이나 장소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하려고 해요. 엔파프(NPAF)에서 원데이클래스 <아침의 트리오가 소개하는 신비한 특수악기> 수



업을 통해 지역 아동들에게 악기를 소개하고 가르쳐주며 앙상블 연주를 함께했던 순간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이번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는 제게 좀 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인천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소래포구도 어릴 적 가족끼리 자주 왔던 곳이에요. 매년 올 때마다 느낀 건 어시장의 활기찬 삶의 현장이었어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과 큰 목소리로 손님의 눈길을 끄는 상인들이 계셨죠. 오랜만에 찾아온 소래포구가 설렘이지만, 공연장이 어떤 형태일지 몰라 기대 반 걱정 반이었던 것 같아요.

공연장 건물은 시장 한복판에 있는 소래포구전통어시장 3층 건물이었거든요. 피아노와 플루트를 짝어지고 3층의 야외

공연장에 들어선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조용한 공간에 해질녘 노을이 쏟아지더군요. 해가 넘어가니 야외 공연장 조명이 노을빛을 대신하고, 영화 같은 장면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제게도 그렇지만 구민들에게도 익숙한 공간에서 느끼는 특별한 경험일 것 같았어요.

####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 공연팀으로 참가하면서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나요?

공연을 준비할 때 항상 분위기와 대상을 생각하고 선곡을 구상해요. 이번 프로젝트 슬로건이 '나를 위한 여행', '우리 가족 여행'이었잖아요. 향유대상을 고려해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선곡하고, 가족 위주의 관객일 경우 특별히 아이들 중심으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곡들을 선곡해요.

마침 가을이라 보사노바 풍의 음악이나 영화 삽입곡을 많이 연주했는데요. <라푼젤>, <시네마 천국>, <사운드오브뮤직> 삽입곡처럼 오랜 시간 사랑받는 노래들은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에게도 반응이 좋죠. 연주마다 아이들에게는 이색 악기를 연주해 주기도 하고 공연 중간에 퀴즈도 내요.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이문세, 김광석, 유재하님의 곡을 연주하기도 해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관객들을 보니 회차마다 모인 관객분들의 특성도 조금씩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모든 분들이 공연을 편안하게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그때그때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주 연령층에 따라 현장에서 선곡을 바꾸는 경

우도 있어요. 장소는 같지만 매번 새롭게 맞이하는 관객 분들이라 더욱 즐거운 것 같아요.

#### 이번 소래바다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감상이 있나요?

마침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우리 팀의 활동을 되돌아보니 여러모로 감회가 새롭네요. 아무래도 올해는 남동구에서 자주 공연했기 때문인지 알아보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반가움을 마주할 때 '우리가 계속해 온 음악활동이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생각 들어요. 처음 <아침의 트리오>를 결성해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때론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을 때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도 불안과 걱정은 있죠. 그래도 저는 팀원들과 함께 할 때 너무 즐거워요. 어리게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말씀드리기 쑥스럽지만, 저는 <아침의 트리오>에 청춘을 바쳤거든요. 멤버들과 함께 꿈꾸며 살아온 시간들을 돌이켜 생각해봤습니다. 한 마디로 제게 <아침의 트리오>란 "일기에 썼던 꿈을 실현시키는 존재다."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아침의 트리오>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멤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공연예술가  
김나린 기타리스트

**아티스트로서 본인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나린입니다. 핑거스타일 기타는 기타 한 대 악기로 밴드 사운드를 구성해 연주하는 기타 연주의 한 장르예요. 좀 더 설명하면 화려한 주법이랑 퍼포먼스 기반 연주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단순히 듣는 감상보다 보는 즐거움도 있죠. 이 장르는 발라드나 타격곡으로 구분되는데 저는 타격곡처럼 신나는 음악을 주로 선곡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관객들에게 퍼포먼스 위주의 보는 즐거움을 선사하려고 노력해요.

핑거스타일 기타연주가 아직 한국에 대중화되지는 않았어요. 이 스타일 자체가 남녀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여자들이 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힘 있게 현을 튕겨야 하고, 때로 울림통을 칠 때 손이 아프기도 하거든요.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기타리스트들도 저 빼고 전부 남자예요. 제가 이 장르를 택한 이래 여전히 여자는 제가 유일하네요. 그래서인지 국내 유일의 '여성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라는 타이틀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국내 유일의 여성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라고 표현하셨는데,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택한 개인적인 이유가 있나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핑거스타일 기타 주법을 접했을 때 제가 잘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국내외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길을 가는 여자 아티스트는 정말 적었거든요. 아무도 안 한다면 내가 해보자는 생각이 있었어요. 막연히 도전했는데 다행히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냥 연주 중에 아픈 걸 참고 연습만 많이 하다 보면 되는 거니까요. 정말 더 솔직히 말하자면 이 걸 하면 저는 유명해지고 성공할 자신이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블루오션이니까요. 남들 안 하는 걸 해야 성공하는 길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핑거스타일은 접하기도 어렵고, 배우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따로 핑거스타일 기타를 배운 것은 아니예요. 본래 7살부터 바이올린을 배웠고, 12살 때 처음 기타를 접했어요. 어머니도 클래식 전공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싫었어요. 클래식과 바이올린이 너무 싫었거든요. 틀에 박혀서 같은 곡을 치는 게 저랑 맞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 성격에 맞는 핑거스타일 기타 장르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어요. 게다가 현악기를 다룰 줄 알다 보니 기타 진입 장벽이 낮았던 거죠. 바이올린보다 기타가 연주할 때 손이 훨씬 덜 아픈 것도 이유네요. 기타보다 바이올린이 훨씬 얇거든요.

시작은 남들처럼 커리큘럼에 따라 레슨을 받거나 전문적인 과정을 거친 것은 아

니예요. 물론 대학은 관련 과를 나왔지만 교수님이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는 아니었거든요. 주로 영상을 보고 따라 하거나 독학했죠. 때로는 이미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저한테 잘 맞아서 즐거웠어요. 클래식 전공보다 자기가 만들어 가는 열정적인 주법, 퍼포먼스와 시각적인 부분들이 제 성향에 잘 맞았어요.

핑거스타일 기타 연주는 배운다고 원하는 만큼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예요. 물론 아예 배움이 없는 것은 아니예요. 기본기를 익히기 위해 일반적인 어쿠스틱 반주 기타부터 시작해야 해요. 흔히 아는 김광석 스타일처럼 기본적인 기타 주법을 익히고 마스터해야 해요. 그 다음 여러 곡을 접하면서 퍼포먼스를 익히는 거죠. 같은 곡이라도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떤 퍼포먼스를 하면 좋겠다고 느끼는 건 경험과 재능의 영역이에요. 결국 이 분야에서 필요한 태도는 자기만의 연주 스타일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뮤지션, 음악감독, 모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분야가 넓은 이유와 그로써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여러 활동을 했지만 결국 제 활동의 중심은 뮤지션이에요. 모델은 기타 업체 브랜드에서 협찬이 들어와서 협력한 거죠. 기타나 장비를 지원받으니 더 공연에 몰두할 수 있었기에 진행한 거죠. 저나 업체나 바라는 것



을 나눌 수 있는 관계라서 좋아요. 음악 감독도 뮤지션으로서 도전해 본 거예요. 처음 제안 받고 안 해 본 일이라 오래 고민하다 수락했어요. 단편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장면마다 쓰이는 약 10개 곡을 전부 작곡하고 연주했죠.

당시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모든 작곡가들은 레퍼런스를 잡고 시작해요. 작품 전반에 흐르는 청자의 감상 느낌을 레퍼런스라고 해요. 애니메이션에서 장면마다 필요한 음악의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런데 먼저 영상을 띄우고 성우들의 대사를 들으니 분위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작곡과 연주에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델도 그렇지만 영화감독도 생계

랑 상관없이 제게는 도전이라고 생각해서 임했어요. 주 직업은 여전히 뮤지션이죠. 기타만 잘 쳐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도전했어요. 정말 음악을 잘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단순한 유명세나 경제적인 것만 아니예요. 아무도 관심 안 갖는 이 장르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번쯤은 열광하는 장르로 만드는 게 딱 제 성공의 목표예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예술활동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최근 활동하고 있는 채널이나 플랫폼이 있나요? 어떤 방향으**

**로 선택하고 연주하고 계신가요?**

기타 연주를 시작한지 15년쯤 됐고, 공연은 10년 차 되어 가네요. 처음 무대에 올랐을 때가 16~17살쯤이었어요. 20대 초반까지 무대가 좋아서 올라갔어요. 정당한 페이는 아니었지만 열정적으로 임했고 기회도 점차 많아졌죠. 해외투어로 이미 중국에서 세 번 정도 공연을 했는데 세계 3대 악기 쇼였어요. 거기서 만난 회사랑 중국 투어도 계획되어 있었죠.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준비 많이 했는데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모든 게 무너진 것처럼 너무 낙담했죠. 다시는 중국에 가기 싫을 정도로요.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싫은 건 아니예요. 당시 크게 좌절한

감정이 떠올라서 피하게 되더라고요.

코로나19 시기 동안 많은 뮤지션들이 어려웠다고 이야기들 해요.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도 기회가 많았어요. 아무래도 공연 경력도 길고 많아서 지인들 소개로 공연이 끊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비대면 공연과 유튜브 채널을 많이 활용했어요. 공연은 관객 없이 카메라만 세워 놓았지만 실시간으로 댓글도 확인할 수 있어서 함께 하는 현장감이 있었죠. 그리고 곡이 끝날 때마다 바로 눈앞 관객이 보이지 않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서 환호와 갈채가 은은하게 들렸어요.

작년 4월부터는 코로나19가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끝나면서 공연 횟수가 확실히 많아졌거든요. 올해 7월부터는 한 달을 거의 꽉 채울 정도로 뽀뽀하게 공연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저도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그 이유는 코로나19 시기부터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뮤지션에 비해 공연 횟수는 많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활발하진 못 했거든요. 공연이 없는 날이면 기타 연습을 더 하고, 그 와중에도 저 자신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노력이 빛을 발한 것 같아요.

**공연 말고도 다른 활동도 여전히 많이 하고 계신가요? 최근 남동문화재단과의 공연은 어땠나요?**

주로 현장 공연을 하지만 유튜브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제 개인 채널도 있지만 다른 유명 채널에 나온 것도 인지도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최대 수확은 '김태원클래스'에 출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온라인 채널에 나가면 평소 연주 연습하는 모습이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히 관심 갖는 부분은 핑거스타일 기타 장르에 대한 것들이죠. 드문 분야라 호기심이 많더라고요.

본래 지방도시나 공공기관의 큰 축제에 초청받거나 버스킹을 지원해서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는 남동문화재단과 작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상반기는 〈버스킹 블라썸〉에 버스킹 공연, 얼마 전에는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 저녁 공연자로 참여했죠. 처음 남동문화재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을 때 걱정을 많이 했죠. 공연 회차는 많은데 너무 적은 팀을 뽑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장소 선정도 마음에 들고, 분위기와 사람들 호응도 좋더라고요. 특히 담당자가 전문 사진작가도 따로 섭외해서 공연 모습을 찍어서 제게도 보내 주셨어요. 그때 찍은 멋진 사진은 아직도 잘 활용하고 있어요. 보통 예산 때문인지 품이 많이 들어서인지 사업운영 단계에서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거든요. 재단도 담당자도 다 배려고 노력이잖아요.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도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저녁 무렵 디너쇼의 일환처럼 보이더라고요. 원래 관객이 밥 먹을 때 공연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정말 관심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쳐다봐요. 공연자는 정말 BGM 역할만 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선을 끌어야 하는데 제 앞 연주자들이 클래식을 공연하니 저도 잔잔한 분위기의 곡을 선곡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신나는 곡들 밖에 없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저도 비슷한 분위기로 가야 하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분위기 바꿔주세요. 그러려고 나린 씨 부른 거예요. 그냥 신나게 해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에 대해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식사하시던 분들도 제가 연주하다 보니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함성 지르니까 다들 환호하시더라고요. 이번 공연도 제 다른 공연과 마찬가지로 그냥 같이 즐기는 분위기로 잘 마무리됐어요.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흥이 많고 기교에 열광하는 민족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뮤지션으로서 활동은 어떻게 그리고 계신가요?**

뮤지션 활동은 앞으로도 공연을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해는 앨범을 내게 될 거예요. 올해는 콘서트를 못 했으니 내년에는 콘서트도 하고 싶어요. 당장은 일정이 가득 차서 둘 다 연말쯤으로 생각하



고 있어요. 콘서트는 한여름이나 한겨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더 뒤의 일은 막연하게 계속 무대에 서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뮤지션은 나이 들면 점점 잊히고 무대에 설 기회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3대 기타리스트들도 여전히 무대에 서고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처럼 나이가 들어도 더 가치 있는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나만 만족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보다 모두가 인정하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더 많은 지역을 돌면서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결같이 연주하는 그런 기타리스트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



## 시각예술가 양의진 작가

**먼저 본인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양의진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서울 예술고등학교 조소과,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조형예술과를 전공했어요. 한때는 음악도 하고 상업적인 디자인도 했지만, 요즘은 개인작업으로 전시회를 열거나 참여예술도 진행하고 있어요. 더불어 대안학교에서 미술교육도 병행하고 있어요. 그래도 제 정체성은 시각예술가, 혹은 아티스트라고 소개하고 싶네요.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활동하시는 분야가 많은데요.**

제 활동범위가 다양한 것은 제가 가진 특별함이라기보다 미술의 표현 범위가 넓기 때문일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다 보니 다채로운 이력이 만들어졌네요. 도서출판 '한권의 책'에서 내는 책에 일러스트 삽화를 냈고 (2014년), 예술파생품을 판매하는 <Lostco Market展>(2014), <굿-즈展>(2015)도 참여했어요. 그리고 <Grandline>, <일리네어 레코즈>, <ATM Seoul> 등 레코드 레이블(record label) 일러스트 디자인도 작업했어요. 최근에는 '토마화실'이라는 공간에서 섭외가 들어와 <진짜로 개봉할지도... 몰라!!>라는 전시도 하고 있어요. 계속하고 있는 일

은 개인 창작작업과 재작년부터 시작한 대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네요. 나머지는 미술 관련된 일이라면 기회가 닿을 때마다 재밌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난 활동 이력 하나하나가 평범하지 않은 것 같네요. 특히 음악 활동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연유인가요?**

중고등학교 때 가장 관심 있던 분야가 미술이랑 음악이었어요. 처음 나스(Nas, 1973~)라는 미국 래퍼를 보고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초등학생 때 MP3나 CDP 기계로 힙합을 들었어요. 랩은 음정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음계가 있는 음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을 들썩이게 만드는 매력에 끌렸던 것 같아요. 내적인 열정을 끌어올리는 비트와 메시지, 그리고 사회 비판적인 가사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네요.

대학은 미술 전공이었지만 마침 주변에 음악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 번개송을 만들기도 했어요. 번개송은 그냥 즉흥적으로 노래를 만들고 같이 노는 거예요. 이렇게 쌓인 곡을 하나의 앨범으로 내봤어요. 재미도 있고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개인앨범도 내고 3년 정도 음악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아무래도 미술이 예술가로서의 제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쓸모 없는 경험은 없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음악이든 미술이든 저는 양쪽에서 다 영감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음악을 할 땐 그림에서 영감을 얻고, 그림을 그릴 때도 음악에서 영감을 얻기도 하죠.

#### 작가님에게 지난 활동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루고 싶은 꿈이 세 개 정도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학창 시절 미술 공부할 때 느낀 건데, 교보문고 같은 대형서적의 베스트셀러 칸에 진열된 책이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고로 잘 팔리는 책에 내 이름이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라고 생각했죠. 두 번째는 래퍼들에 대한 동경에서 시작해요. 저는 힙합을 좋아하고 래퍼들이 멋지게 느껴져서 그들처럼 입고 싶었어요.

힙합 의류매장에 가면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 때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 목소리가 담긴 노래가 나오면 어떤 기분일까?’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멋진 옷이라고 생각해서 사 입었는데, 마침 그게 내가 디자인한 거라는 걸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무슨 기분이 들까?’라고 떠올렸던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 제 예술활동은 질문 형태의 제 꿈을 시도하고, 이루어 왔던 과정이에요. 첫 번째 꿈은 아까 말씀드렸던 책을 내면서 이뤄요. 몇 개월인가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음악도 길거리 걷는데 어떤 술집에서 제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또 <Lostco Market>이나 <굿-즈> 전시에 낸 것이 패러디 티셔츠거든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유명 래퍼들도 입더라고요. 저는 꿈을 이루면 흥미

가 떨어지나 봐요. 하나씩 꿈은 이뤄는데 한 동안 갈피를 잃고 매너리즘에 빠졌었어요. 책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작업하고, 이제 앨범도 안 내고 있어요. 오히려 본업인 그림으로 돌아왔죠. 결국 제 중심에는 그림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었나 봐요.

#### 요즘 하고 있는 전시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진짜로 개봉할지도... 몰라!!>라는 타이틀로 올해 10월 26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운영해요. 페이크 다큐 형식의 전시를 표방하면서 전체적인 기획과 연출에 신경을 썼어요. 처음에 관객이 오면 도슨트가 붙어서 안내를 해줘요. 전시장에 들어가면 2001년에 있었던 애니메이션 회사를 소개해 주는 거죠. 제 그림을 작품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루존 미디어>라는 애니메이션 회사 감독들을 섭외해서 22년 만에 회고전을 연 것이다.”라고 관객에게 정보를 줘요. 여러 애니메이션 그림이나 굿즈를 보여주거나 제작 과정도 안내하죠. 전시관람이 끝나면 도슨트가 이 모든 것이 허구였다고 말해요. 관객이 속았다고 알아차리는 것까지 전시예요.

#### 그림이나 작품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나 의도가 있는 건가요?

제 작업은 작품마다 개별적인 의도가 있다기보다 표현방법 자체에 주제의식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를 둘러싼 세상을 자주 비판적으로 관찰하거든요.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적이라기보다 사건과 현상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작품은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구성하길 좋아해요.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 작품으로 얻길 바라요.

제가 느끼는 요즘 세상은 허구가 난무하거든요. 소셜미디어를 봐도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알 수 없잖아요. 이번 전시도 현대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허구의 공간이죠.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 이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럼 그 의미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 저는 전시로 관객이 갖가지 생각을 하고 자신만의 대답을 찾기 위한 질문을 던지길 바라는 거죠.

#### 최근 대안학교에서 교육자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은 어떤가요.

제가 있는 대안학교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데, 저는 미술을 가르쳐요. 중고등학생들을 통합해서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서 제가 소개로 들어왔죠. 취미나 흥미 차원에서 기초적인 기술을 배우는 정규수업과 미술을 대학에서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심화반을 가르치고 있어요. 심화반 수업은 제가 대학에서 배운 다양한 시각을 가르쳐 줘요. 대학 수업에서 이 학교 오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가 기교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상상력을 펼치도록 가르쳐줬을 때였거든요. 대학 1~2학년 때는 미국식 파운데이션 수업(전공수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과목이나 공부를 익히는 과정), 3~4학년 때는 유럽식 도제 관계처럼 교수님과 스튜디오 수업을 진행해요. 작품에 대한 토론과 비판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거든요. 저도 이 두 가지 방식을 조합해서 수업하려고 노력하고 있긴 해요.

언뜻 지금까지 활동과는 달라 보이지만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제 작품의 주제의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미술은 국어, 영어, 수학같이 입시를 위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토대를 길러주려고 노력하죠. 아이들과 작품을 만들고 토론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저도 아이들한테 배우는 점이 많아요. 세상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접할 때면 작품에 대한 영감을 얻을 때가 많죠. 남동문화재단에서 그림 그리는 활동도 하고 기술 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면 연결되었을 때 함께 하기로 시도한 것도 그 때문이죠.



#### 최근 남동문화재단과 함께 작업한 것은 무엇인가요?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 프로그램 중 가족들과 함께 새우타워 앞에서 그래피티 아트를 체험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5×1.5m 현수막에 그림 도안을 그리고, 그 위에 아이들이 컬러링북처럼 색칠과 그림을 그리게끔 유도하는 거였어요. 바다 그림이 중심인데 바다에 공간을 많이 비워서 바다생물이나 해변의 풍경을 그려서 완성시키는 거죠. 매번 다른 도안으로 시작해서 다른 결과물로 끝나는 것이 흥미로웠어요. 날씨도 계속 좋고 아이들을 비롯한 어른들 호응도 좋아서 현장을 지나는 사전 신청 안 한 사람들도 참여 문의가 많았어요.

마지막 수업할 때였어요. 그때도 계속 아크릴 물감을 뒤섞어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아이들이 도안에 색과 그림을 다 채우면 제가 빈 공간에 상어나 새우 같은 바다 생물을 직접 그려주는 라이브 페인팅을 진행했어요. 한 아버지가 아이가 그리는 그림과 주변 풍경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는 현수막 밑에, 아버지는 현수막 위에. 저는 아버지랑 아들이 같이 그림을 그리는 풍경이 보기 좋았어요.

#### 앞으로 본인의 활동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이들 교육하면서 제 작업을 따로 하고 있잖아요. 이번 남동문화재단

이랑 그래피티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 참여해서 작품을 같이 만들어 간다는 것이 새롭게 느껴졌거든요. 불특정 다수와 어떤 창작 작업을 한다는 건 고집 있는 예술가들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일로 그것이 깨졌어요. 생각하지 못한 결과물도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영감을 주더라고요. 사실 관객과 소통하고 질문을 주고받는 건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더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작업물로 도전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때는 연령도, 성별도, 국적도 상관없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번 재단에서 참여한 5m짜리 캔버스가 아니라 50m가 되지 않을까요? ■



## 행위예술가 원태운 마술사

**아티스트로서 본인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인천에서 나고 자라 전문 공연 마술사로 활동하고 있는 원태운이라고 합니다. <매직 저글링>은 신기한 마술과 화려한 저글링을 합친 공연을 한다는 의미의 활동명이죠. 마술경력은 약 1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내 활동경력이 많지만 해외에서도 500회 정도 공연을 한 것 같군요.

**공연예술가이자 마술사의 길을 택하신 계기와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마술은 중학교 때 학교 동아리에서 처음 접했어요. 운이 좋게도 고등학교에도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대학교 국내 유일의 마술학과를 졸업했어요. 동아리 선배가 마침 대학의 같은 학과에 진학하기도 했죠. 여기서는 마술의 역사나 원리, 무대연출, 공연예술 실무 등을 배웁니다.

마술은 생각보다 역사가 길어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가 마술사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기원전 이집트에서 마술사 공연이 있었다는 말도 있을 정도죠. 본격적인 마술의 시작은 근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마술이 트릭 중심으로 발전하면서부터예요. 현대 마술은 규모나 장소에 따라, 혹은 소품이나 연출방식에 따라 나뉘기도 해요. 요즘은 기본기를 바탕으로 저마다의 방식으로 연구하고 연습해서 공연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1세대 마술사는 이흥선 선생님(1924~2011)이시죠. 한국 최초의 마술사로 비둘기 마술부터 공중부양 마술까지 대부분 마술을 국내에 처음 도입하셨죠.

2세대는 우리가 방송으로 잘 아는 이은결, 최현우 마술사고요. 최현우 마술사도 이흥선 선생님의 제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활동하는 방식이 달라서 분명히 말하기 어렵지만 저는 아마 2세대쯤에 속할 거예요.

제 마술도 단순히 남들 하는 것이나 배운 것만 보여주는 것은 아니예요. 저글링, 풍선쇼, 수정구슬요기, 구속복탈출쇼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공연을 구성하고 있어요. 특히 마술과 저글링을 결합한 공연은 제가 처음이죠. 이제 국내 유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버스킹하는 친구들도 마술공연에 저글링을 추가하고 있더라고요.

**<매직 저글링>으로 활동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앞서 해외공연을 많이 다녔다고 했잖아요. 해외공연에서 필요한 이름을 짓다 보니 이름을 새로 정한 거예요. 2012년 처음 버스킹을 시작했는데 본래 활동명은 다른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릴 때 우리 소개를 위해서 활동명이 필요하더라고요. 버스킹은 길거리에서 하니 '거리', 마술을 농담으로 '사기'라고 부르잖아요. 이것을 합치니 <거리에 나온 사기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거리에 나온 사기꾼>을 영어로 바꾸자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른 나라 말로 활동명을 정할 때 너무 길거나 어려우면 국내에서도 발음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 마술의 '매직', 특별한 레퍼토리인 '저글링'을 넣어 <매직 저글링>이 된 거죠.

#### 해외활동은 어떻게 인연이 된 건가요.

2012년도 버스킹 활동을 하면서 2013년도 유튜브 업로드로 인기를 끌었어요. 그동안의 활동 인지도를 바탕으로 2015년도에는 해외에 진출했어요. 처음은 말레이시아였어요. 쿠알라룸푸르 '겐팅 하이랜드(Genting Highlands)'라는 한국의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곳이에요. '겐팅 하이랜드'에서 해마다 공연팀을 섭외하는데 그때는 버스킹 형식의 공연팀을 선정하고 있었어요.

그냥 스테이지 마술만 하는 공연자가 아니라 버스킹 형식에 맞는 공연자를 찾다 보니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어요. 당시 3개월 공연 일정이었고 약 300회 정도 버스킹을 했죠. 쉬는 날 빼고 매일 같이 10번 이상 한 것 같네요. 섭외한 곳에서 공연비도 주지만 관객으로부터 팁도 받을 수 있었어요.

당시 저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각 지역에서 온 공연팀들의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었어요. 해외 공연팀은 주로 아크로바틱한 서커스처럼 몸을 많이 쓰는 공연을 하더라고

요. 그리고 '겐팅 하이랜드'가 고지대에 위치한 1년 내내 가을 날씨인 관광명소다 보니 동남아시아 주변에 있는 더운 나라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놀러 오더라고요. 버스킹을 끝내고 나면 팁 박스에 각국의 화폐가 쌓였어요.

3개월 공연이 끝나고 혼자 싱가포르에 갔어요. 팁으로 쌓인 돈 중에 싱가포르 통화가 많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외여행과 함께 해외 버스킹 공연을 했어요. 이렇게 <매직 저글링>을 알리다 보니 해외공연 섭외도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홍보를 의도한 것은 아니고 제가 버스킹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계를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이 커요.



더 정확하게는 무일푼으로 얼마큼 살아남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해외 버스킹을 하다보니 어딜 가서든 먹고 살 수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말이 안 통하니까 공연에 어려움은 있었어요. 주로 배경음으로 분위기를 내고 말은 줄였죠. 제 공연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공연하면서 재밌는 분위기를 위해 멘트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 <매직헌터>라는 활동명도 있던데요.

<매직헌터>는 임시로 급조한 이름이에요. 본래 활동명은 <매직 저글링>이 맞아요. <매직헌터>는 이번 남동문화재단의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다른 마술사들에게도 기회를 제안해 보려고 만든 이름이었어요. 혹시 제가 다른 사유로 공연 일정이 안 맞아서 빠질 수도 있잖아요.

'The Show Must Go On'(프레디 머큐리 생전 최후의 싱글곡 제목)이죠. 그런데 올해 10월은 공연 일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3번 출연 일정에 모두 맞출 수 있었어요. 다행이죠.

#### 기관과도 일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번 남동문화재단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의 참여는 어땠나요?

다른 기관과 버스킹 공연을 할 때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장소나 시간대, 그

리고 운영방식이 버스킹에 잘 안 맞거든요. 물론 섭외비도 주고 관객으로부터 팁 받는 걸 제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연 횟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로 비용을 지불하더라고요. 하루 세 번을 해도 1일분만 공연비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어쩌면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거리공연은 팁으로 먹고 사니까요.

그보다는 시간과 장소 선정이 문제죠. 보통 해가 저물고 나서 피크 타임이에요. 그런데 기관 담당자의 출퇴근 시간 때문인지 오전과 오후 늦게까지만 운영하더라고요. 버스킹 스팟이 있는 도시도 있는데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 설치된 경우도 있었어요. 젊은 세대부터 그냥 취미로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소음과 불만을 관리하기 위해 따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하지만 버스킹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리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기예를 관객들에게 펼치는 공연이죠. 버스킹의 매력은 모르는 누군가와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일상 상황극이에요.

그런데 남동문화재단의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 사업은 아티스트 특성에 따라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았어요. 저녁 디너쇼 같은 프로그램의 공연으로 참가했죠. 일단 공간이랑 분위기를 잘 꾸며 놓았더라고요. 제가 연말연시 송년회나 신년회를 많이 가는데, 관객이 이번 행사처럼 식사

하면서 공연 관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관객이 식사 때문에 공연에 집중을 잘 안 해요.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재단은 제 앞두 공연팀은 클래식이나 재즈 같은 음악 공연을 구성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배치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관객들도 어느 정도 음식을 다 먹은 상태가 되죠. 눈으로 보아야 하는 제 공연의 관객 집중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세심한 기획이 느껴졌어요.

인터뷰를 하는 오늘은 제가 <소래 바다 문화길 프로젝트>에 관람객으로 참여해요. 저는 저녁 행사만 봤지 낮에 하는 프로그램은 잘 모르잖아요. 저녁 코스요리 때문에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전 비위가 약해서 회는 잘 못 먹거든요. 그보다는 전체 행사 프로그램이나 다른 팀의 공연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공연자나 기획자 포함 6명을 모았어요. 다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지만 바빠서 만나기 어려웠거든요. 이 기회를 핑계 삼아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거죠.

#### 본인에게 버스킹을 비롯한 공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코로나19 시기에는 공연이 많이 줄었었죠. 특히 해외공연은 2019년 프랑스를 끝으로 완전히 끊겼어요. 이제 내년 초는 다시 해외에 나가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번은 꼭 초청이나 섭외가 들어와 간다기보다 그냥 힐링 여행이에요. 올해는 정말 힘들었

거든요. 지난 5월 축제에서 공연 중 사다리를 타다 다쳤어요.

1년 중 성수기가 5월과 12월이거든요. 성수기를 놓친 거죠. 그래서 벌충하려고 일을 많이 받았어요. 이상하게 올해는 10월 공연이 많더라고요. 일정을 확인해 보니 한 달 동안 59번의 공연을 했어요. 매일 3번 이상 공연을 한거죠. 마침 1~4월은 비수기기도 해서 회복의 시간을 가지려고요. 올해 다치고 나서 생각했는데 저한테는 몸이 자산이라 건강에 신경 써야겠다고 느꼈어요.

남들은 버스킹 준비하면서 짐 옮기고 무대 세팅하는 것들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후 6시에 정규공연이 끝나면 같은 날 밤까지 버스킹을 세 번 더 해요. 제 라이프 스타일이 버스킹에 최적화되어 있기도 하고, 저로 인해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계속할 원동력을 얻거든요. 제 모토가 “우연한 만남을 즐거운 추억으로 바꿔드립니다.”이기도 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공연과 버스킹을 하면서 살지 않을까 생각해요. 당장 구체적인 계획을 정밀하게 짜는 성격은 아니지만 제가 그리는 미래의 모습은 있어요. 정장을 입은 노년의 신사가 거리에서 바이올린 연주 버스킹을 하는 장면이요. 저는 나이 들어서도 공연을 하고 사람들에게 일상의 활기를, 그리고 제게는 삶을 살아갈 원동력을 끊임없이 얻고 싶어요. ■■■



전문가 분석

## 진나래 겸임교수 (인하대학교)

### 고래를 품은 갯벌

인천 사람이라면 대부분 소래포구에 대한 추억 하나쯤은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어릴 적 어머니 손에 이끌려 찾았던 소래포구는 갈매기 소리와 갯벌 내음이 가득한 어시장이었다. 요즘처럼 번듯한 건물과 간판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낡은 파라솔과 천막, 합판으로 만들어진 가판대들 사이로 어머니들의 구두와 상인들의 장화가 질척이는 바닥을 누비고, 위로는 갈매기가 하늘을 누비던 풍경이 필자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시장에서 새우와 꽃게를 사서 골목을 요리조리 돌아 우리가 사 온 새우와 꽃게를 바로 요리해 주는 음식점을 찾곤 했는데, 그렇게 먹는 일에 맛이 들려 꽃게 철, 새우 철이 되면 꼭 그 맛이 생각이 났다. 꽃게와 새우, 젓갈로 유명한 소래포구는 꼭 인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와볼 법한 당일치

기 여행지이기도 하다. 연배 있으신 분들이 기억하시는 꼬마열차는 사라졌지만, 수인 분당선이 그 자리를 대체하여 생긴 소래포구역에서 시장까지는 걸어서 금방이기도 하고, 자가용이 있는 수도권 사람이라면 꽃게 철을 맞아 드라이브 겸 가볍게 훌쩍 나서기 좋기도 하다.

인천시 남동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재단연합회와 준비한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는 이러한 소래포구의 관광 자원과 그 주변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파ил릿 프로그램으로, 가족 대상 행사인 '소래바다 우리 가족 여행'과 그 외 성인 참여 행사인 '소래바다 나를 위한 여행'으로 구성되었다. 여행의 시작과 끝은 같지만, 자녀를 둔 가족의 요구와 그렇지 않은 이들의 요구가 다르니 여기에 맞추어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다. '소래바다 우리 가족 여행'의 경우 4세 이상~중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그라피티'와 같은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보다 활동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을 포함하였다. 반면 '소래바다 나를 위한 여행'의 경우 친구, 연인, 가족 동반을 포함해 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보다는 성인에 초점이 맞춰진 프로그램이기에 보다 정적인 '무소음 음감회'가 '그라피티' 행사를 대체한다.

참여자들의 여정이 시작되는 소래역사관은 시장과 식당, 가판대가 즐비한 소래포구 한복판에 위치하여 있다. 갈매기가 우는 소리를 들으며 신선한 해산물을 즐기고자 하는 여행객들로 북적거리는 거리를 지나 생뚱맞게 멈춰 선 협궤용 증기기관차를 만나면, 그곳이 소래역사관의 앞마당이다. 소래역사관은 소래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체험형 박물관으로, 갯벌과 염전, 수산물 시장, 협궤열차를 중심으로 소래의 과거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여기에 인천시 공인 도슨트의 설명을 곁들여 참여자들이 더욱 정확하고도 흥미롭게 소래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소래바다 문화길'의 첫발이다. 소래역을 재현한 전시장 입구를 지나 작은 염전 모형에서 썰매질을 체험하고, 전시물을 통해 갯벌 생물들을 살펴보면 소래포구의 역사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고 학습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간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소래포구의 협궤열차를 기억하기도 하시는데, 이 협궤열차를 70퍼센트 축소하여 복원한 모형 안에 들어가서 복작였을 그 시절 꼬마열차 안에서의 경험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 열차 모형 앞에 놓인, 놀랍도록 디테일한 소래포구 시장 미니어처를 보고 있노라면 그 정감 있던 옛 소래포구, 그 때의 공기마저 느껴질 정도이다.

소래역사관에서 옛 소래포구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거나 소래의 역사를 학습하고 나면 본격적인 현재의 소래 탐방이 이루어진다. 커다란 금빛 꽃게 조형물이 있는 갯벌 위 길을 지나며 진흙을 뒤집어쓰고 가끔씩 고개를 내미는 작은 게들을 발견하고 기뻐하다 보니 금세 새우가 솟아오를 듯 서 있는 모양새를 하고 있는 새우타워에 다다랐는데, 이곳이 두 번째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여기에서 '소래바다 우리 가족 여행'에 참여한 아이들은 물감을 섞어 색을 만들어 바다 생물들이 그려진 현수막에 그 색을 입히는 그라피티 활동을 할 수 있고, '소래바다 나를 위한 여행'에 참여한 성인들은 주변 주민들을 배려해 헤드셋으로 연결하여 무소음으로 진행되는 '무소음 음감회'를 체험할 수 있다. 그라피티 체험이나 음감회가 끝나고 나면 새우타워에 올라가 주변 풍광을 감상하고, 이후 남동소래아트홀로 이동하는 순서이다. 무소음 음감회의 경우 모니터링 당일 급격한 한파로 인해 다음 장소인 남동소래아트홀 전당대에서의 실내 음감회로 변경되어 야외 특유의 정취를 포기해야 했던 점이 아쉽기는 했지만, 참여자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받아 진행된다는 점, 헤드셋을 통해 어딘가 모르게 참여자들이 연결된다는 느낌을 가지며 풍광과 분위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여전히 흥미로웠다.

새우타워에서 남동소래아트홀로 이동하는 길은 다소 애매하다. 재치 있는 방식으로 도보 이동이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것도 쉽지 않을 성싶다. 주최 측에서는 결국 차로 5분 남짓한 이동 거리를 위해 관광버스를 대절하였다. 어떻게 하면 이 이동을 개연성 있으면서도 흥미롭게 만들어볼 수 있을까 고민을 시작하기 무섭게 '고래'를 모티브로 설계하였다는 남동소래아트홀에 도착하였다. 협궤열차와 염전, 갯벌과 어시장에서부터 시작된 세계관이 거대한 황금 '꽃게'와 솟아오르는 '새우'를 거쳐 더욱더 거대하게 반짝이는 '고래'로 귀결되는 셈이었다. 버스를 타고 시간 여행하듯 이동하여 마주한 이 은빛 고래의 내부는 남동문화재단이 준비한 문화·예술 양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1층의 전시장에서는 청년 작가들의 전시를 관람할 수 있었고, 로비에서는 본 행사를 위한 천연 염색 체험을 해볼 수 있었으며, 3층의 전당대에서는 남동소래아트홀 주변의 멋진 풍광을 감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시민들이 찾아온 기회에, 남동소래아트홀과 남동문화재단에 대한 홍보가 더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은 아쉬운 점이다. 남동문화재단은 공연장과 전시장, 전당대가 있는 이 남동소래아트홀을 거점으로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과는 시간이 맞는 공연 프로그램

이 없었지만 실제 운영 시에는 공연 관람이 맞물려진다면 아트홀을 방문하는 시간이 더욱 흥미로운 시간이 될 수 있겠지 싶다. 천연 염색 체험의 경우 지역과의 개연성이 떨어지는 감이 있기도 한데, 바다를 연상케 하는 쪽 염색이나 여행 또는 가을날을 연상케 하는 스카프 등으로 소재나 스토리텔링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도 있겠다는 제언을 조심스레 해본다.

소래포구의 상인이 준비한 해산물 요리와 지역 예술인의 공연이 함께하는 저녁은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이다. 클래식에서부터 재즈까지, 다채로운 음악 공연과 마술 공연을 관람하며 갯벌이 보이는 운치 있는 야외 테이블에서 랍스타와 제철을 맞은 꽃게, 대하가 포함된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다니, 무료로 진행된 이번 행사 신청자들에게는 횡재나 다름이 없다. 문화가 아닌 단순 먹거리로 참여자들을 현혹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소래포구가 원체 꽃게와 해산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할뿐더러 지역 상인이 직접 정성껏 만들어주신 음식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본 프로그램의 취지와 이만큼 잘 맞는 기획이 또 있겠는가 싶다. 실제 운영 시에는 식사 전 다만 30분이라도 참여자들에게 소래포구 어시장을 둘러보고 쇼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도 좋겠다.

지역 관광과가 아닌 지역 문화재단에서 기획하는 프로그램인 점을 고려했을 때, 본 행사에서 문화나 예술이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분명한 것은, 이 행사에서 문화와 예술은 주인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지역 문화재단의 정당성을 받아들이고, 지역 문화재단이 시민과 지역 예술인과의 열개를 느슨하게나마 짜기 시작할 수 있다면, 이때만이라도 문화나 예술이 잠시 병풍이 되면 또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공적 자금의 투입 없이 이와 같은 기획이 지속 가능할지 여부는 본 프로그램의 난제일 수 있다. 그런데 어쩌면 공공 재단이나 공적 자금은 그런 기획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전면 상업화하기엔 어려운 이러한 실험적인 기획에 공적 자금이 마중물이 되어주어 시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문화 연계형 틈새 관광을 즐길 수 있다면, 그런 자리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더 다양한 시민을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어 이러한 만남이 점차 다각화된다면, 그것은 문화·예술 지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다.



## 서정미 외래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 소래바다 문화길에서 예술을 입다

소래포구는 인천 남동구 서해안가의 어항이며 포구로서 1930년대 염전이 생기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곳이다. 1930년대 일본 수인선 협궤열차가 지났으며 1970년대에는 소형어선이 정박할 수 있는 포구로 자리를 잡으며 수도권의 대표적인 재래 어항이 되었다. 오랜 역사와 지역적 특색을 겸비한 장소에 머문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다. <2023년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 '나를 위한 여행'에 참여하면서 다음과 같이 사업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2012년 개관한 소래역사관을 소개하는 문구 “소래의 발자취를 따라 아름다운 추억 속으로”라는 문장처럼 급속한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심 속 바다라는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하여 소래바다의 발자취를 따라 밟아 볼 수 있었다.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는 소래포구라는 지역적 특색을 갖고 있으며 추억의 장소에 예술을 입혀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문화관광자원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도심 속 바다라는 경관을 유지하며 과거 염전이 존재했고 현재 갯벌이 펼쳐진 장소에 새우, 꽃게가 유통되는 곳으로 볼거리와 먹거리가 공존하는 지역 관광자원 콘텐츠로 활용할 요소가 많은 곳이다. 소래바다 문화길은 소래포구 어시장과 바닷길 공원으로 이어진 산책로와 어시장, 식당가, 소래아트홀을 지나는 길에 음악과 전시, 공예 체험과 로컬푸드 시식으로 오감을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코스로 기획되었다. 짧게 걷고 쉼을 얻고 이야기를 듣고 쉼을 얻을 수 있어 나이 많은 노년층을 비롯한 가족과 연인과 동료와 함께 만나질, 하루, 1박 2일에 따른 선택적 관광상품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소래역사관 해설사를 통해서 당시 염전이 만들어진 배경과 역사적 사건들을 들 수 있다. 역사관내 전시물 소래역을 지나 협궤열차를 타고 그 안에서 소래포구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다음은, 역사관을 출발하여 소래 바닷길을 걸었다. 물으로 드러난 갯벌에 앉은 갈매기와 바다 내음을 맡으며 도심속 바닷가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다. 바닷길가에 세워진 새우타워 앞 공원에서 소래바다를 배경으로 한 '나를 위한 여행, 조용한 음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에 적절한 콘텐츠로서 예술적 체험 아이디어로 돋보였다. 조용한 음감회의 취지에 맞게 블루투스 개인 헤드폰과 편안한 의자와 테이블, 오로지 만남의 시간을 제공했다. 각자 자유롭게 자리에 앉아 헤드폰을 쓰자 귓가에 울리는 음감회 DJ의 라이브 진행은 재미와 웃음을 주기도 했고 눈을 뜨고 바라보면 소래바다가 펼쳐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문화길 참여자들이 신청한 사연과 곡을 소개하고 들려주는 DJ의 멘트와 사연 그리고 신청곡을 실내가 아닌 오픈된 실외 자연에서 조용히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프로젝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콘텐츠로 보인다. 1시간여 진행된 프로그램이었으나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위로의 시간을

느끼는 듯 감상에 빠져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음미하였다.

다음 코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야외에서 실시간으로 들려주는 음감회에 만족한 서로의 감동을 주고받기도 했다. 개인 신청 사연의 감동과 소래바다를 보며 듣는 체험 과정에 깊은 여운을 느낄 수 있었다.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에서 가장 높이 평가해 주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소래포구를 대표하는 꽃게설치물과 새우타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소래아트홀로 이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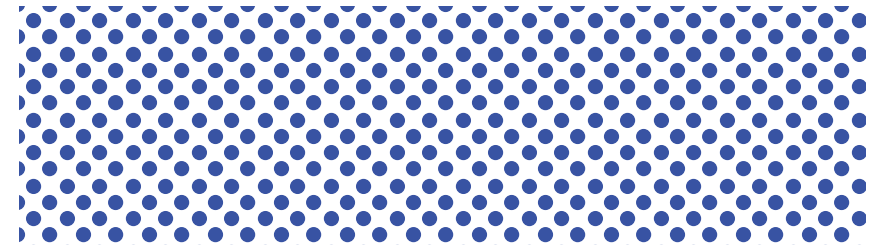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소래아트홀에서의 예술적 체험과 어시장 옥상식당에서의 공연관람을 하며 로컬푸드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은 본 프로젝트가 문화관광자원으로 부합하고 적합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소래아트홀의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 전시를 관람하고 아트홀 옥상에서 바라보는 소래바다는 도심 속 자연경관의 조화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을 대표하는 재료로 요리된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가의 안내에 따라 가방에 염색하는 체험은 촉감을 통해 창작자의 느낌이 들도록 하며 색의 변화 자연의 요소를 입혀내는 예술적 방법을 경험함으로써 문화 체험 콘텐츠로서 남녀노소 가능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여겨진다.

아트홀에서의 예술적 체험을 뒤로하고 소래포구 어시장으로 향했다. 어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봄과 가을 꽃게라고 한다. 가까운 지역의 연평도에서 잡힌 꽃게는 소래포구 어시장을 통해 들어오고 꽃게찜, 꽃게탕, 새우, 회 등 지역 특산물을 요리한 음식이 탄생하고 주위에 전문 식당가들이 있어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본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어시장 옥상 야외 식당에 마련된 공연무대와 예술가의 재즈, 발라드, 어쿠스틱 공연으로 감동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꽃게찜, 꽃게탕, 새우 등 로컬푸드로 저녁식사를 하며 지역 해산물을 맛볼 수 있었다. 바다 내음 나는 야외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의 노래와 연주 그리고 로컬푸드라는 요소를 접목 함으로써 소래바다 문화길 마지막 코스에 예술을 입혀낸 적절한 콘텐츠라고 볼 수 있다.

〈2023년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 주제와 참여자의 대상에 따른 소주제 ‘나를 위한 여행’은 지역 문화자원에 예술을 입힌 힐링 프로그램으로써 소래포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 적합한 콘텐츠라고 여겨진다. 다만, 날씨와 탐방 장소의 걷는 거리에 따라 야외 프로그램의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고 본 프로젝트가 분기별로 다채롭게 진행된다면 다시 또 방문할 수 있는 관광객들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본 사업이 누구나 만족할 만한 소래바다 문화길이 될 수 있도록 예술을 입혀 감동과 위로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사업들과 차별성을 둔 선행 프로그램의 개발로써 야외에서 펼쳐지는 ‘조용한 음감회’처럼 쉬어가며 여유 있게 눈으로 감상하고 귀로 들어 지역의 매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지영림 프로듀서 (세종문화회관)

### 소래바다, 사람들, 그리고 문화예술

오늘날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은 지역의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거론되는 화두 중 하나이다. 보통 축제나 관광과 같은 비교적 큰 틀에서 논의되곤 하지만, 이번 남동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는 소래포구의 문화관광자원을 보다 일상적인 관점에서 구성하고 있어 흥미로웠다.

기본적인 사업 내용은 소래포구에 위치한 문화관광자원(소래역사관, 새우타워, 남동소래아트홀, 어시장)을 이동하며 체험, 관람하는 프로그램이다. 소래역사관에서는 특히 문화관광해설사가 가이드로 참여해 협궤열차, 염전, 소금 등 소래포구를 둘러싼 역사/

문화적 맥락을 심도 있게 설명해주었다. 외지인 입장에서는 소래포구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들을 수 있어 흥미로웠다. 소래포구의 거주자들 또한 익숙한 장소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소래역사관에서 새우타워로 이동하며 소래포구 산책로를 거닐 수 있었고, 소래포구의 랜드마크인 새우타워에서는 타겟별로 프로그램의 차별화를 둔 것에서 기획적 꼼꼼함을 느낄 수 있다. 가족단위를 위한 그래피티 체험은 아이들이 굉장히 몰입하여 즐겼고, 소래포구의 '바다'를 모티브로 그래피티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지역 자원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소래포구 바다를 바라보면서 사일런트 디스코 헤드셋으로 음악을 듣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 '조용한 음감회' 또한 특색 있는 이색 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한다. 요즘 유행하는 '불멍'처럼 바다를 바라보며 음악과 자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간 사일런트 디스코 프로그램은 다소 동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사례를 많이 목격했는데, 타 프로그램과 다른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소래포구가 가진 자연 경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새우타워에서 남동소래아트홀로 가는 버스를 이용해 이동했는데, 아동,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해서는 좋은 배려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성인 프로그램에서는 도보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다. 새우타워와 남동소래아트홀 거리는 도보 20분, 차량 5분 안쪽의 시간이고 최근 트래킹, 산책, 워킹 등의 활동들이 선호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리를 프로그램으로 포함하는 것을 제안해본다. 새우타워에서 남동소래아트홀 산책로 조성이 잘 되어있으며 자연 경관 또한 트래킹에 유리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여행'이라는 컨셉에도 잘 부합하리라 생각한다. 소래아트홀에서 진행된 전시, 체험 프로그램 또한 재단이 가진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체험 프로그램 구성 시 소래포구의 지역성과의 연계성을 찾아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한다면 보다 완결성 있는 기획이 될것이다. 소래포구 바다를 모티브로 한 그래피티, 소래포구 바다를 바라보며 진행된 조용한 음감회에서는 지역성과 프로그램 간 연결고리를 찾으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비해, 천연 염색 체험은 지역성보다는 일반적인 문화에

술 체험의 형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소래포구전통어시장에서 진행된 ‘해산물 요리가 함께 하는 공연’은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시간이었다. 지역의 가장 매력적인 관광자원(어시장, 먹거리)과 예술을 함께 선보이면서 시너지를 냈다고 본다. 지역문화재단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인 지역문화에 술인 지원 관점에서 소래포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도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종합적으로 이번 (2023년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는 소래포구가 가진 역사/경관/문화/먹거리 자원을 밀도있게 연결했고, 소래포구 지역 매력도를 상승시킨 우수한 프



로그램이었다고 평가한다. 지역문화재단에서 다루는 사업이 주로 ‘문화예술’인데 비해 이번 사업은 ‘관광’까지 포괄하여 재단 입장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실험이었으리라 생각된다. 회차당 20~30명이 3개 이상의 장소를 이동하며 진행되는 프로그램 특성 상, 운영에 까다로운 부분이 많았을 텐데 진행이 원활했고 운영 능력의 수월성이 돋보였다. 특히 ‘우리 가족 여행’과 성인 대상 ‘나를 위한 여행’으로 프로그램을 분리하고 각 타겟별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모니터링 결과 이번 프로그램에는 남동 혹은 인천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참여가 많았다. 가족단위 참여자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을 매개로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이 가능했고, 성인 참여자들 또한 같은 시공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쌓는 것을 목격했다. 성인 참여자의 경우 연령대가 다소 높았는데, 성인 참여자의 연령, 참여동기 등을 살펴보는 것 또한 향후 사업 기획을 위한 유의미한 발판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번 사업에는 지역민들의 참여

가 많았으나,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가 지속된다면 지역민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외부 관광객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보이며, 그에 따른 프로그램의 변수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지역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은 지역민들에게 지역 정체성을 정립하는 기회로 작용하고, 외부인들에게는 지역 인지도 및 호감도를 높이며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공헌하게 된다.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포구이자 수산물 시장으로 사랑받아온 소래포구가 문화예술을 통해 한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방문식 차장 (평택시문화재단)

### 지역활성화를 위한 문화기획의 경험소비적 측면에 대하여

소래포구는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서해 어항이기에 해산물과 갯벌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췄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포구로 자리 잡았기에 다른 유구한 역사를 지닌 서울과 경주, 그리고 부여 같은 고도에 비해 역사가 짧은 편이다. 최근 역사관, 아트홀, 새우타워 등 역사, 문화, 관광을 위한 거점이 만들어졌으나 여전히 역사·인문적 콘텐츠보다 포구로 대표되는 소비와 갯벌이라는 자연환경이 사람들 인식에 앞서고 있다.

이 자체는 이미 주어진 환경적 조건이기에 단순히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갯벌과 소래포구는 천혜의 자연환경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에 긍정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화적인 기획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주민들 말에 따르면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은 수도권 인근에서 값싸고 싱싱한 해산물을 소비하거나 갯벌과 바다를 체험하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요즘 소비 트렌드는 이른바 '경험 소비'이자 '가치 소비'의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시류를 묶어서 '경험 경제'라고도 부르고 있다. 여기서 경험 경제란 기술의 발달로 제품 경쟁력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은 차별화된 경험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에 가치를 두기 시작했다는 측면을 포착한 경제 개념이다. 이제 소비자들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재화를 소비하는데 이성적 이유보다 감성적 요인에 따라 이루어지며, 사람들은 상품에 담겨 있는 이야기와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하려고 한다.

경험 경제의 배경으로는 몇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소셜미디어(SNS: Social Network Service)와 개인 미디어 방송의 확산을 들 수 있다. 과거는 일방향의 매스 미디어가 이미지를 생산하고 수용자가 소비하는 형태였다. 이제 개개인이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특별한 경험을 하고 그것을 확산하는 주체로서 떠올랐다. 최대 소비자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는 소유보다 경험을 축적하고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는 소비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성비보다 때로는 남들에게 축적한 경험을 보이기 위해, 혹은 본인에게만 의미가 있는 가치를 소비하게 된 것이다.

이제 문화기획의 측면에서 경험 경제를 짚어보자. 지역문화재단은 지역을 문화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출범한다. 이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장소성에 기반한다. 그리고 장소성은 지역 내 관광자원으로 꼽히는 역사, 문화, 자연 등 주민과 공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재단은 이들을 엮어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배울거리를 만들어 외부 관광객이 찾아와 오래 머물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바란다. 즉, 요즘 소비 트렌드에 맞는 문화재단의 역할은 관광객이 지역으로 찾아와 특별한 문화적 경험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사업을 기획하는 일이 된다.

그럼 상기 전개를 바탕으로 이번 <2023년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를 살펴보자. 이 사업은 지난 10월부터 11월 한 달간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문화가 있는 날-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남동문화재단에서 주관하고 운영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사업목적은 소래포구 인근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이 일대를 관광객들이 오래 머물고 소비하고 보고 즐기는 방식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된다.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표방하고 있는 기획 방향은 지역 범위 내 점적으로 산재한 자연 및 인문 자원을 선적으로 묶어 활성화 길을 만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래역사관-새우타워-소래아트홀-소래포구전통어시장을 답사길로 묶었다. 대상은 지역민과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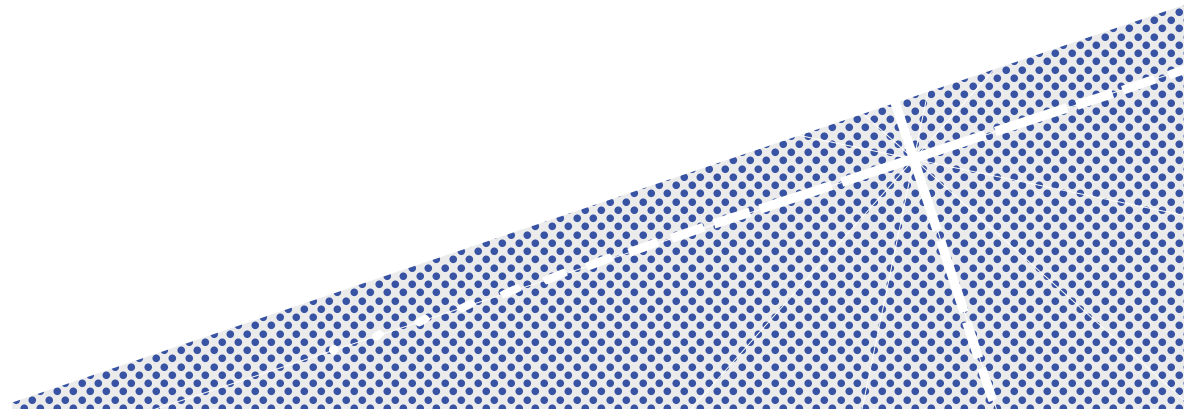
광객 구분 없이 가족과 개인으로 구분했다. 가족은 4세 이상~중학생 자녀를 포함한 부모들, 그리고 개인은 성인이라면 누구라도 가능하도록 했다. 콘텐츠는 소래역사관에서 소래포구의 역사 해설, 새우타워에서는 체험 위주의 디제잉이 포함된 음감회, 참여 예술체험, 소래아트홀에서는 전시와 공연, 마지막으로 어시장에서는 공연과 함께 하는 해산물 맛보기 체험이다.

각각의 답사길은 도보와 버스로 이동하며, 사업 담당자와는 별도로 전문 프로그램 운영진이 투입되었다. 운영진은 전문 MC, 문화해설사, 전문 디제이, 체험 교육사, 해산물 셰프, 그리고 전문 공연자가 있었다. 전문 MC는 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흥미를 돋우며 답사 지점마다 특색과 프로그램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소래역사관에서는 문화해설사가 소래포구 역사로 갯벌과 수인선을 알려주고, 전문 디제이는 새우타워에서 '조용한 음감회'를 이끌었다. 소래아트홀에서는 자유로운 전시관람과 함께 천연염색 DIY를 체험 교육사가 관

리했다. 마지막으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3층 야외공연장에서는 공연팀과 함께 지역민들이 참여해 만든 해산물 요리 디너쇼가 펼쳐졌다.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인상은 가족과 친구들로 구성된 관광객이 소래바다에서 볼거리, 배울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이곳이 익숙치 않은 관광객들에게 어디서부터 어떤 방식으로 소래바다라는 남동구의 관광자원을 즐길 수 있는지 레퍼런스를 제공한 셈이다. 소래바다를 수도권에서 가까운 갯벌이자 수산시장이라는 이미지에 더해 그 속에 문화프로그램을 넣음으로써 경험소비의 측면으로 인식을 선화한 것이다. 또한 참여자를 매회당 20여 명 내외로 제한하여 참여자 개개인이 존중받고 질 높은 문화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세심히 기획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문화재단은 장소를 기반으로 지역을 문화로 활성화하고자 문화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다만 그 성과는 단순히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문화로 인한 지역 활성화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목표나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지역의 변화는 점진적이라기보다 정체기와 확장기가 계단식으로 관찰되기 때문이다. 즉, 시계열의 눈금이 길어 어찌보면 생각보다 먼 시점에서 지난 문화기획의 성과가 관찰될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세대의 문화적 니즈를 파악해서 지역의 문화기획에 반영하고, 이로써 해당 지역이 문화로 활성화되고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전개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 왕용운 대리 (인천중구문화재단)

### 남동(지역)문화 생태계의 새로운 변화: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

#### 들어서기: 10월의 어느 멋진 날, 소래바다와 함께한 날

10월의 어느 멋진 날 필자는 남동문화재단에서 기획·운영하는 ‘2023년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 소래바다 우리가족 여행’ 프로그램에 모니터링 평가자로서 또 한 명의 참가자로 프로그램 참여 가족들과 함께하였다.

처음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했을 때에는 소래바다 인근에서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보고 놀랍기도 의문이 들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보고 남동 문화 생태계에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변화의 시작점을 함께하는 것 같아 흥미로웠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과 함께 시작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함께 참여한 여섯 가족의 적극적인 프로그램의 시작 준비를 보며 필자 또한 그들과 함께 소래바다와 함께할 시간을 준비하였다.



#### 경험하기: 함께 즐기는 소래바다의 문화관광자원

프로그램의 시작은 소래역사관에서 역사 문화해설가의 해설과 안내로 인천 개항의 역사에서부터 소래바다, 소래염전, 소래포구, 소래포구 어시장까지 점점 남동의 역사로 이어지는 역사탐방으로 이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해를 사전에 돕고 관람으로 남동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두 번째로는 소래포구의 상징적인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는 새우타워에서의 그라피티 체험이 진행되었는데 가족단위의 참여자(아이들)에 타게팅 한 프로그램이었다. 처음 그라피티 체험이 있다는 안내를 받은 후에는 ‘소래포구 앞에 참여자들의 낙서를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소래바다를 형상화한 현수막에 참여자들이 그라피티 체험

을 하는 것을 본 후 그래피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겼던 체험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여러 의미를 느낄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다

세 번째로는 소래아트홀에서 전시관람과 바다 염색 체험을 진행하였는데 남동구의 많은 문화예술 제공을 책임지는 소래아트홀에서의 대중적 전시 관람과 바다 염색 체험은 지역의 문화공간을 알리는 역할을 하며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지역 문화' 카테고리에서 벗어난 휴식과도 같은 프로그램 속에서도 소래바다를 알리고자 하는 의지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는 소래포구의 대표 관광자원인 소래포구전통어시장에서 수산물 요리와 함께 예술인들의 공연이 이어졌다. 공연은 언제 봐도 즐겁지만 소래포구의 야경과 멋진 음식이 함께하니 참여자로서는 더할 나위가 없었던 시간이었다. 다만 한 명의 평가자로는 너무 좋은 음식들을 보니 '어떻게 이런 음식이 참가비도 없이 제공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으나 종료 후 어시장에서 나오는 재료들로 상인들이 만들어서 협찬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의문이 풀림과 동시에 '참여자들도 이 사실을 안다면 해당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더욱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긍정의 의문이 남았던 프로그램이었다.

역사탐방을 시작으로 소래바다(남동구)를 대표하는 공간들에서 문화자원을 활용한 그래피티 체험, 전시관람, 공연관람까지 장시간 진행되더라도 전혀 지루함 없이 가족단위의 참여자들이 보고, 듣고, 즐기고 직접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함께 즐기는 소래바다의 문화관광자원'은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된다.

### 이해하기: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의 적합성 및 문화예술적 성과

인천 개항의 역사와 함께한 소래바다는 예로부터 소래포구, 소래 염전(현 소래습지생태공원), 어시장, 호구포 등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소래포구는 1933년 소래 염전이 들어서고, 1937년 국내 유일의 협궤열차가 다니는 수인선이 개통되며 발전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연평균 70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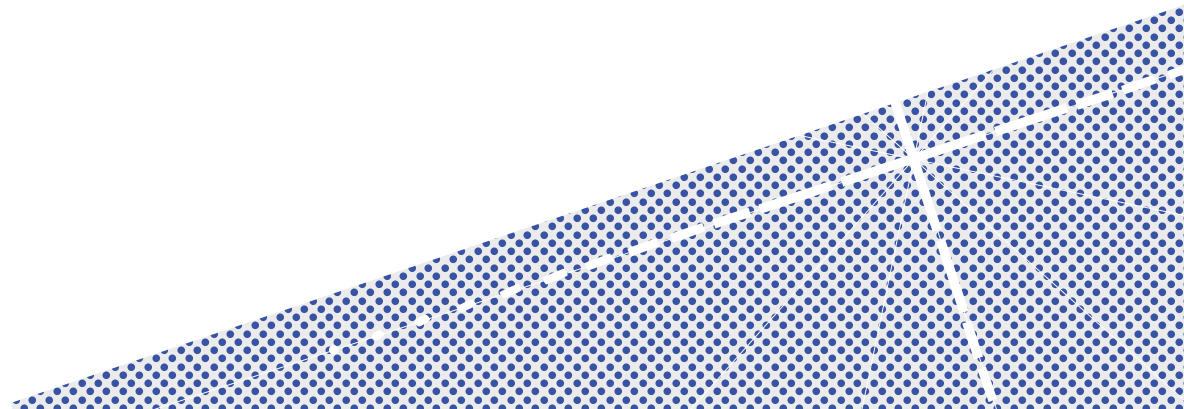
이렇듯 풍부한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가진 남동구에서 진행된 이번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는 단순히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아닌 '남동의 문화'를 담은 총체적 의미의 문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되며, 소래포구 상인회와의 연합, 지역 내·외부 예술인들과의 협업 등을 통해 '참가와 참여' 두 가지 모두를 신청자들에게 제공하여 지역 문화를 알림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의 경험을 제공한 부분이 성과이자 의미일 것이다.

### 총평: 대표 문화 프로그램으로의 기대효과

영국의 인류학자 타일러는 '문화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를 내렸듯 문화란 흔히 지금 사회에서 종의적, 대중적 의미로 표현되는 '문화예술'이 아닌 문명과 비견될 정도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는 이번이 첫 시도였던 만큼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 문화 자원을 더 활용, 배포하도록 기획한다면 남동문화의 극치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술과 관광을 넘어 소래바다의 대표 문화 프로그램으로 지역 문화자산의 보존 및 가치 제고 부분에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현상을 배가 시키기 위해서는 상설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운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어렵다면 소래포구 축제와의 연계 운영을 고려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장시간의 프로그램 시간 중 소래바다와 관련한 영상물이 함께한다면 더욱 참여자들이 소래바다에 몰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장미 주무관 (화성시청)

### 지속가능한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를 위한 소견

####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

“아는 만큼 보인다.” 이는 이번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 소래포구가 궁금하여 챗지피티에게 물었다.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로 예쁜 풍경, 신선한 해산물이라고 한다. 문화자원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소래포구는 많이 달랐다. 소래포구 주변의 문화자원을 엮은 이번 프로젝트는 짧은 시간 지역을 이해하고 경험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었다.

일정의 시작은 소래역사관이다. 지역의 장소를 알리기 위한 역사관, 전시관은 수 없이 많다. 지역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역사관이 제 역할을 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소래역사관은 본연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다. 단순한 거점이 아닌 프로그램의 안내자로 참여자에게 지역에 대한 정보, 현재까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오늘의 활동을 기대하게했다. 역사관의 이야기를 보았기에 새우타워에서 갯골을 관찰할 수 있었고, 소래철교를 보며 과거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이후 조용한 음감회는 자칫 프로그램 미참여 주민에게 공해 될 수 있는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하며, 공간을 평화롭고 즐겁게 공유했다.

의례 문화관광 프로그램에 손으로 만드는 체험활동을 하기 마련이다. 그 장소는 남동문화재단이 있는 소래아트홀이다. 소래아트홀은 여느 복합문화센터와 매우 달랐다. 가이드의 설명이 아니어도 고래의 모습이었다. 이 장소에 대해 아쉬운 한 가지는 공간을 전시 보고 체험 활동하는 거점으로만 활용했다는 것이었다. 건축물 내외부 공간을 구석구석 탐험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소래아트홀의 다양한 활용가치를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돌아온 소래포구 옥외 정원에서 진행된 음악회는 포구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즐비한 횃집, 포장마차, 비린내 등 그간의 편견을 깨트릴만한 놀라움이고 매우 매력적인 장소였다. 지역 해산물로 만든 다채로운 음식과 음악회의 조화는 소래포구의 문화여가 장소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시켜주었다.

### 지속가능한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의 방향성

현재 문화, 관광에 있어 저탄소, 공정여행이 중요시 여겨진다. 또한, 사회적으로 중요시 여겨지는 지표 중에 2015년 UN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p>1)</sup>가 있다.

이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는 '지역의 고유문화와 특산품을 알리고, 일자리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한다.'<sup>1)</sup>는 세부 목표<sup>2)</sup>에 아주 적합했다.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는 대중교통의 접근성, 도보이동, 지역 상권과 상생을 택했다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었다.

'남동문화재단'은 관이다. 관 주도 사업의 안정적인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금방 시들어버린다. 여기에 남동문화재단은 '소래포구 상인회'라는 지역 단체를 능동적인 운영진으로 등장시켜 프로그램 마무리에 화룡점정을 장식하게 했다.



참고로 가까운 시흥에 '동네 봄'이라는 공정여행 협동조합이 있다. 그 곳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방문한다. 왜일까? 해답은 지역 주민에 있었다. 지역에 애착이 강한 주민들이 문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활용법을 찾아 이야기를 만들고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처럼 지역주민을 능동적인 기획자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문화기획자로 양성하는 과정도 지역 문화재단의 역할일 것이다.

1)  
2015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UN SDGs(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와 지구 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적 공동목표

2)  
8번 목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8.9)

## 앞으로의 과제

짧은 시간 진행된 프로젝트로 소래포구 인근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후의 과제는 지역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가치있는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더 많은 인원이 남동구, 소래포구를 방문하게 해야 할 것이다. 소래바다 문화길을 어떻게 홍보하고 활용할지는 지역민, 관계기관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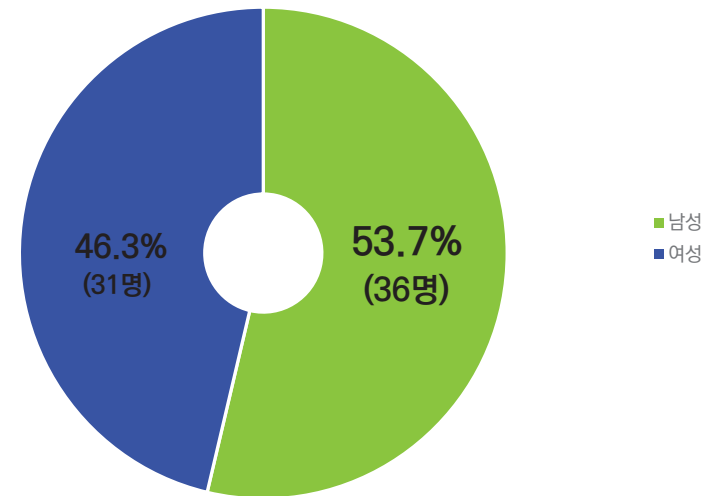
소래포구를 검색하면, 문화여가도시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길 바란다.

# 만족도 조사



## 특별회차 만족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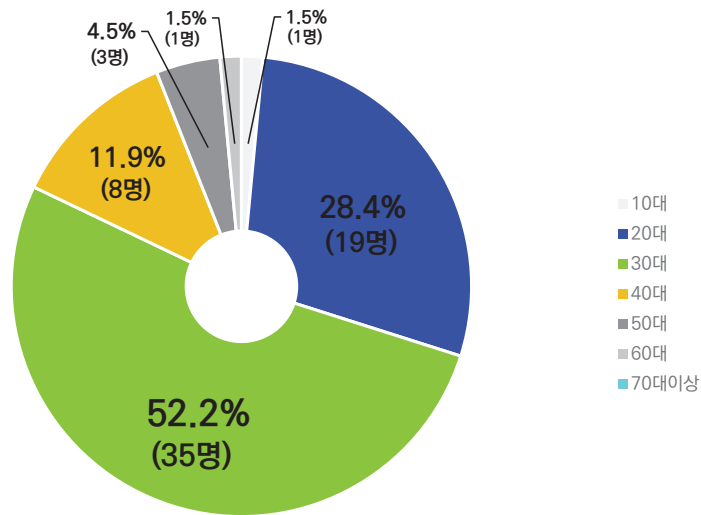
| 설문 참여자 성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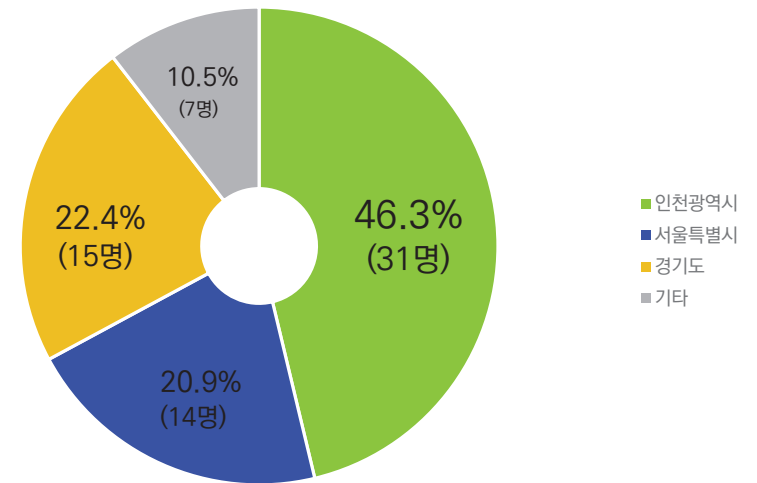
| 설문 참여자 성별 |

구분	운영내용	
성별	남성	53.7%(36명)
	여성	46.3%(31명)
	합계	100%(67명)

| 설문 참여자 연령대 |



| 설문 참여자 거주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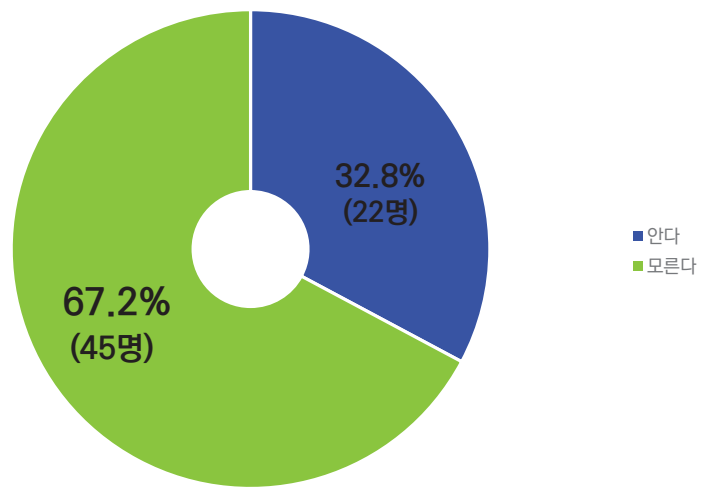
| 설문 참여자 연령대 |

구분	운영내용	
연령대	10대	1.5%(1명)
	20대	28.4%(19명)
	30대	52.2%(35명)
	40대	11.9%(8명)
	50대	4.5%(3명)
	60대	1.5%(1명)
	70대 이상	0%(0명)
	합계	100%(6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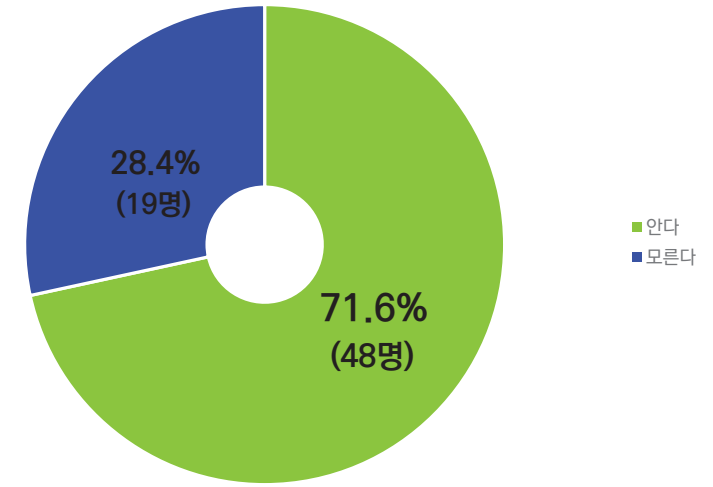
| 설문 참여자 거주지 |

구분	운영내용	
거주지	인천광역시	46.3%(31명)
	서울특별시	20.9%(14명)
	경기도	22.4%(15명)
	기타	10.5%(7명)
	합계	100%(67명)

| 남동문화재단 인식 여부 |



| 소래포구 인식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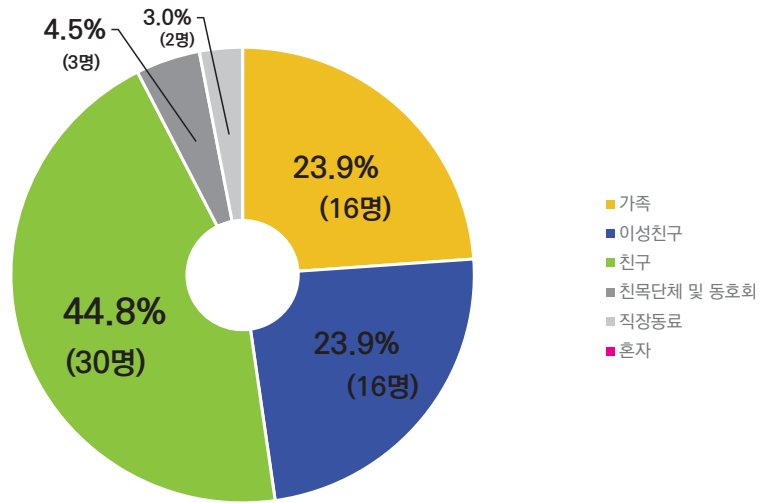
| 남동문화재단 인식 여부 |

구분	운영내용	
재단 인식 여부	안다	32.8%(22명)
	모른다	67.2%(45명)
	합계	100%(6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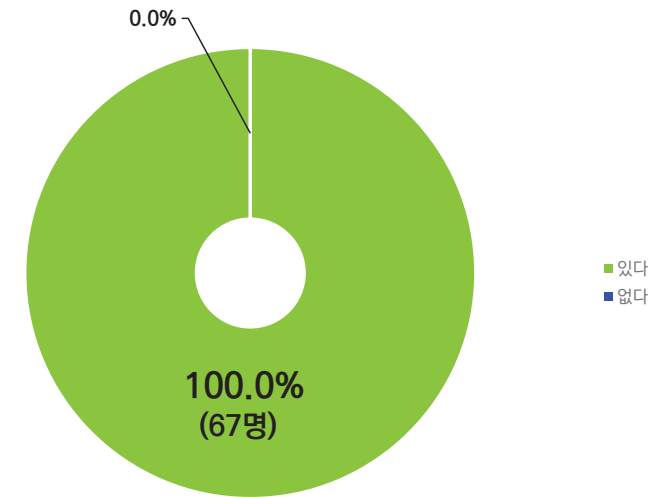
| 소래포구 인식 여부 |

구분	운영내용	
소래포구 인식 여부	안다	71.6%(48명)
	모른다	28.4%(19명)
	합계	100%(67명)

| 행사 동행자 |



| 소래포구 재방문 의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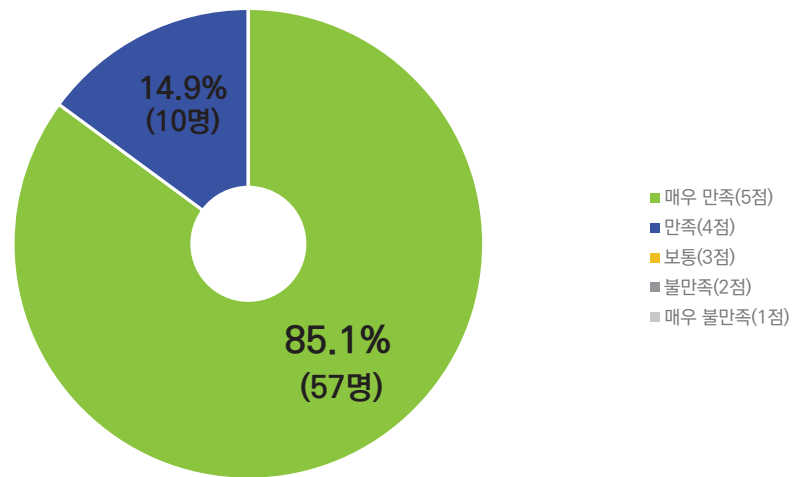
| 행사 동행자 |

구분	운영내용	
행사 동행자	가족	23.9%(16명)
	이성친구	23.9%(16명)
	친구	44.8%(30명)
	친목단체 및 동호회	4.5%(3명)
	직장동료	3.0%(2명)
	혼자	0%(0명)
	합계	100%(67명)

| 소래포구 재방문 의사 |

구 분	운영내용	
소래포구 재방문 의사	있다	100%(67명)
	없다	0%(0명)
	합계	100%(67명)

| 행사 만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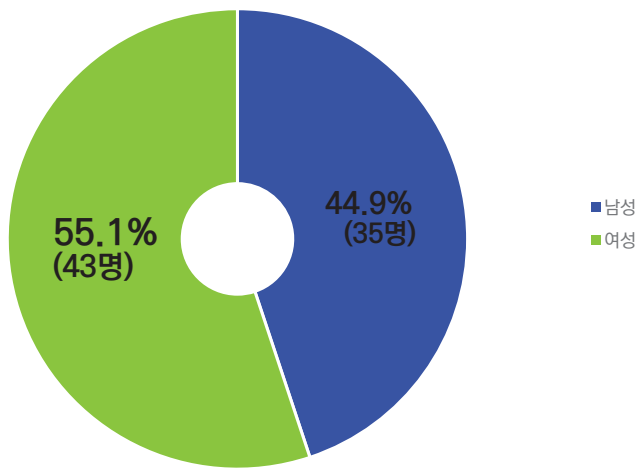


| 행사 만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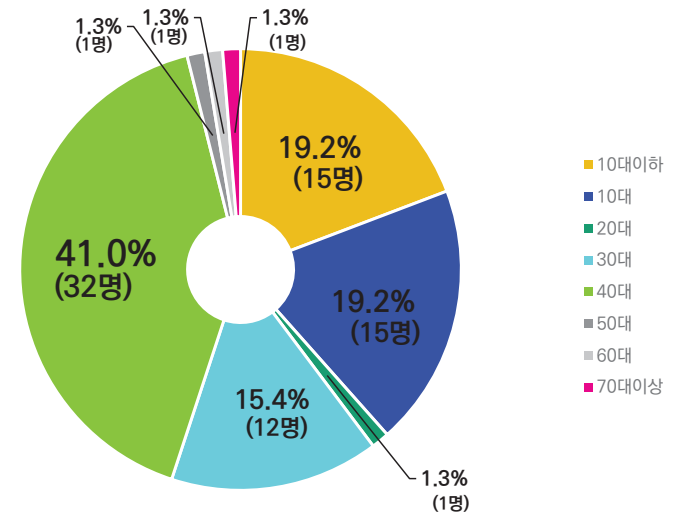
구분	운영내용	
행사 만족도	매우 만족(5점)	85.1%(57명)
	만족(4점)	14.9%(10명)
	보통(3점)	0%(0명)
	불만족(2점)	0%(0명)
	매우 불만족(1점)	0%(0명)
	합계	100%(67명)

## 가족 대상 회차 만족도 분석

| 설문 참여자 성별 |



| 설문 참여자 연령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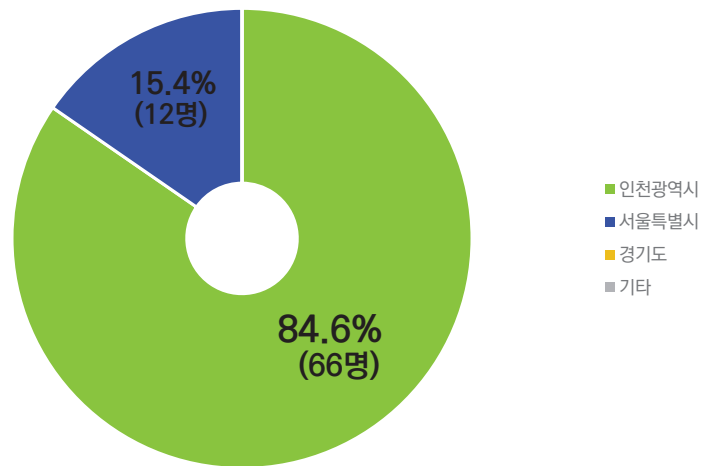
| 설문 참여자 성별 |

구분	운영내용	
성별	남성	44.9%(35명)
	여성	55.1%(43명)
	합계	100%(7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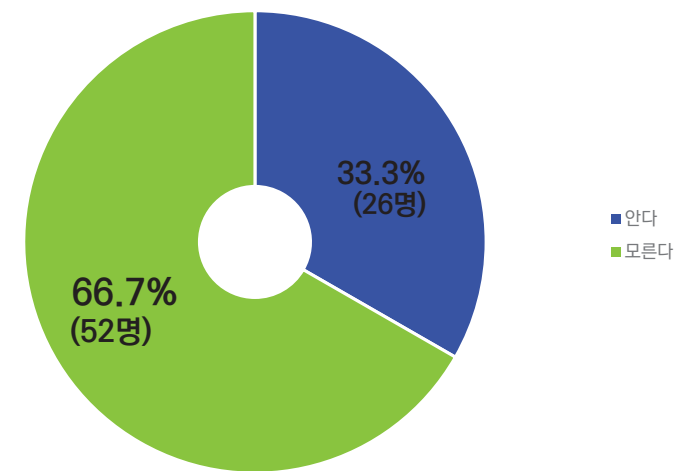
| 설문 참여자 연령대 |

구분	운영내용	
연령대	10대 이하	19.2%(15명)
	10대	19.2%(15명)
	20대	1.3%(1명)
	30대	15.4%(12명)
	40대	41.0%(32명)
	50대	1.3%(1명)
	60대	1.3%(1명)
	70대 이상	1.3%(1명)
	합계	100%(78명)

| 설문 참여자 거주지 |



| 남동문화재단 인식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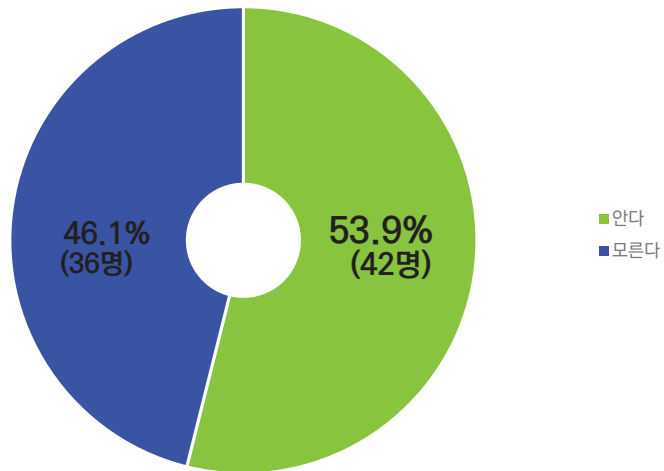
| 설문 참여자 거주지 |

구분	운영내용	
거주지	인천광역시	84.6%(66명)
	서울특별시	15.4%(12명)
	경기도	0%(0명)
	기타	0%(0명)
	합계	100%(7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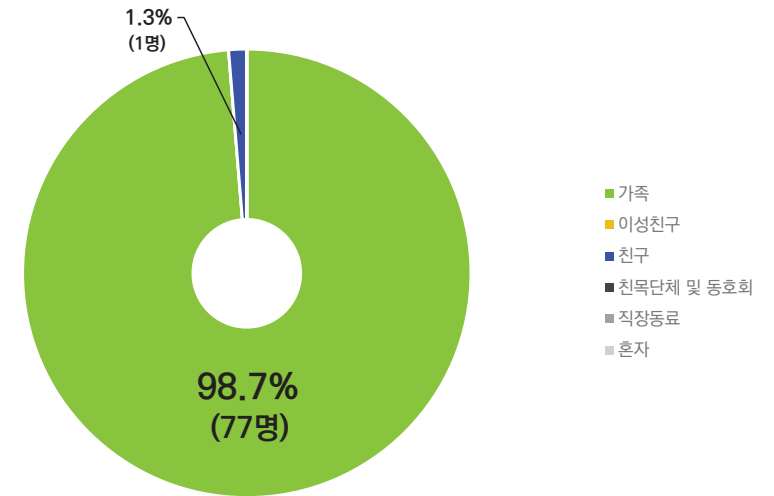
| 남동문화재단 인식 여부 |

구분	운영내용	
재단 인식 여부	안다	33.3%(26명)
	모른다	66.7%(52명)
	합계	100%(78명)

| 소래포구(인근 관광지 포함) 인식 여부 |



| 행사 동행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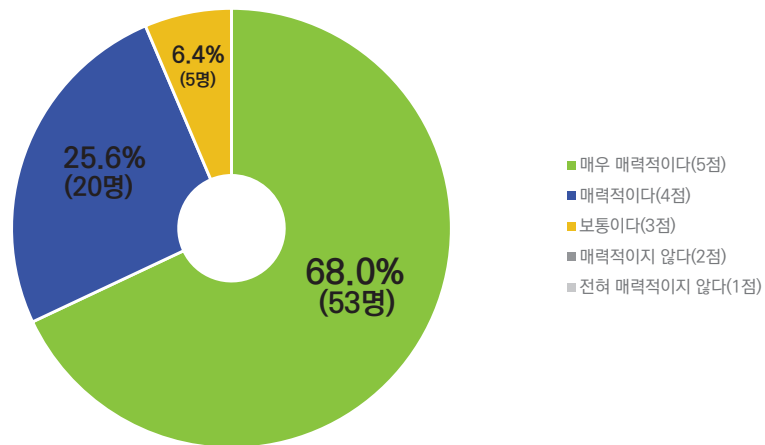
| 소래포구(인근 관광지 포함) 인식 여부 |

구분	운영내용	
소래포구 인식 여부	안다	53.9%(42명)
	모른다	46.1%(36명)
	합계	100%(7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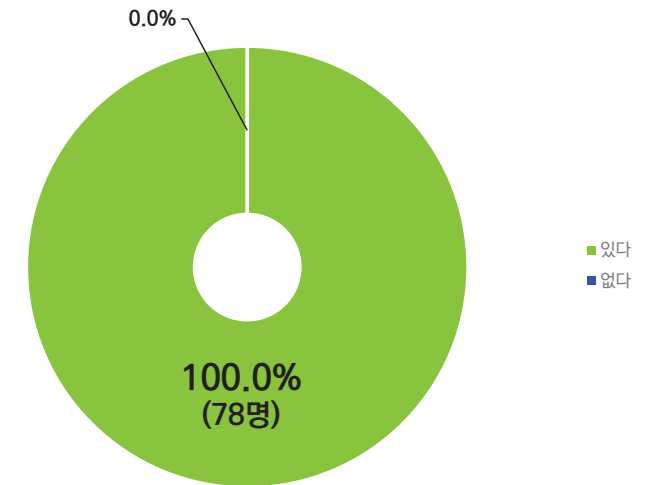
| 행사 동행자 |

구분	운영내용	
행사 동행자	가족	98.7%(77명)
	이성친구	0%(0명)
	친구	1.3%(1명)
	친목단체 및 동호회	0%(0명)
	직장동료	0%(0명)
	혼자	0%(0명)
	합계	100%(78명)

| 소래포구(인근 관광지 포함) 매력도 |



| 소래포구(인근 관광지 포함) 재방문 의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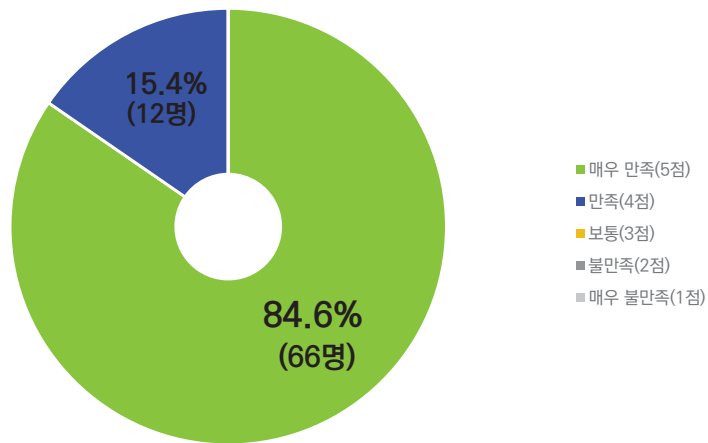
| 소래포구(인근 관광지포함) 매력도 |

구분	운영내용	
소래포구 매력도	매우 매력적이다(5점)	68.0%(53명)
	매력적이다(4점)	25.6%(20명)
	보통이다(3점)	6.4%(5명)
	매력적이지 않다(2점)	0%(0명)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1점)	0%(0명)
	합계	100%(78명)

| 소래포구(인근 관광지 포함) 재방문 의사 |

구분	운영내용	
소래포구 재방문 의사	있다	100%(78명)
	없다	0%(0명)
	합계	100%(78명)

| 행사 만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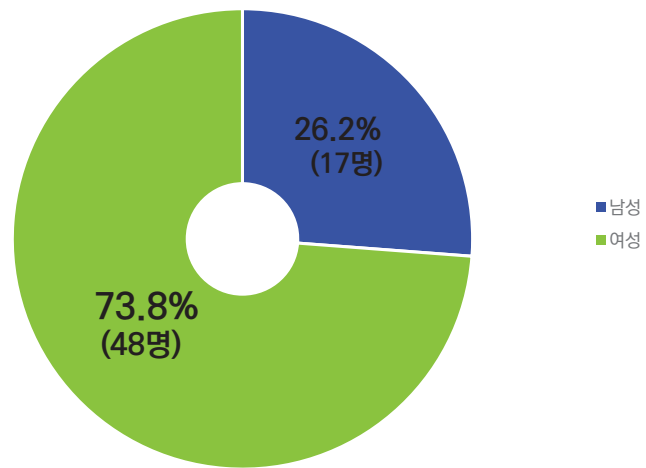


| 행사 만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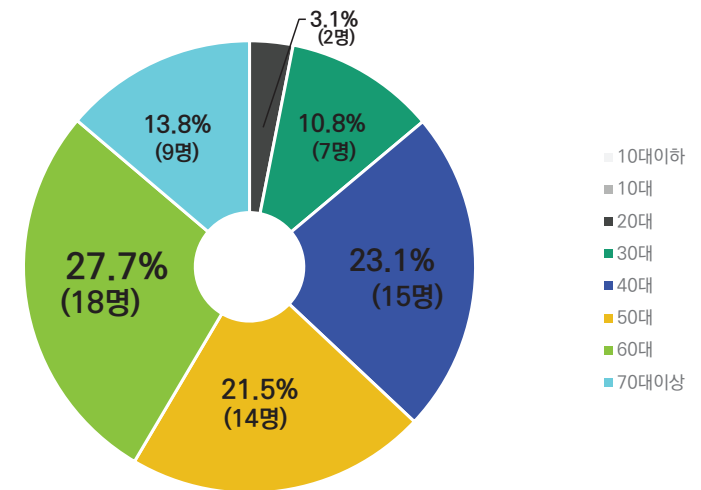
구분	운영내용	
행사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5점)	84.6%(66명)
	만족한다(4점)	15.4%(12명)
	보통이다(3점)	0%(0명)
	불만족한다(2점)	0%(0명)
	매우 불만족한다(1점)	0%(0명)
	합계	100%(78명)

## 성인 대상 회차 만족도 분석

| 설문 참여자 성별 |



| 설문 참여자 연령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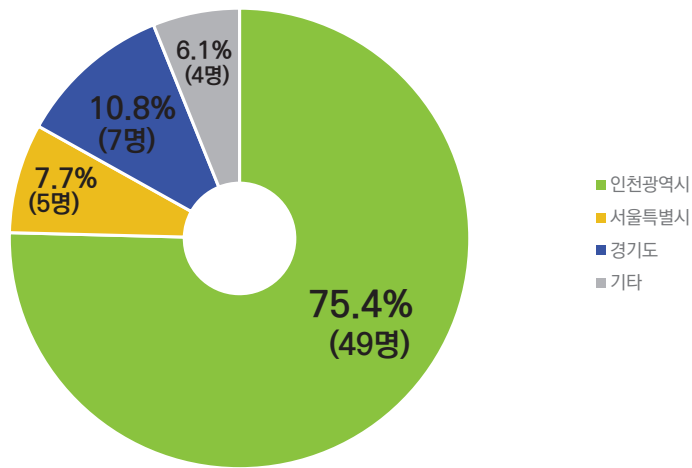
| 설문 참여자 성별 |

구분	운영내용	
성별	남성	26.2%(17명)
	여성	73.8%(48명)
	합계	100%(6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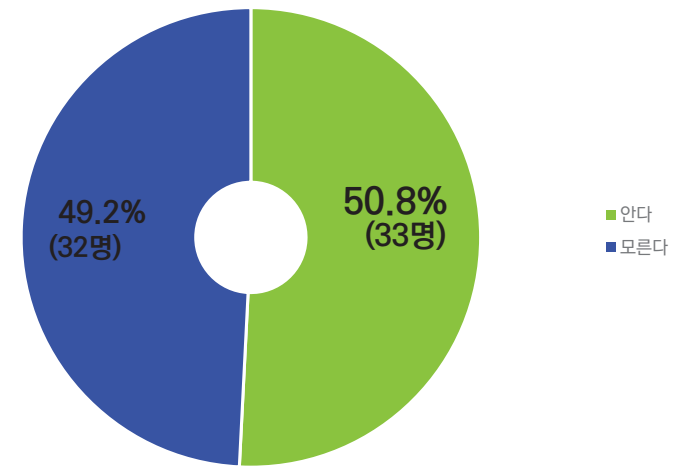
| 설문 참여자 연령대 |

구분	운영내용	
연령대	10대 이하	0%(0명)
	10대	0%(0명)
	20대	3.1%(2명)
	30대	10.8%(7명)
	40대	23.1%(15명)
	50대	21.5%(14명)
	60대	27.7%(18명)
	70대 이상	13.8%(9명)
	합계	100%(65명)

| 설문 참여자 거주지 |



| 남동문화재단 인식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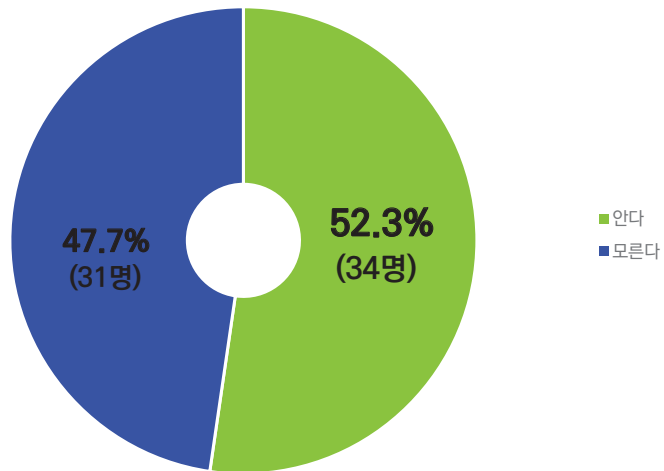
| 설문 참여자 거주지 |

구분	운영내용	
거주지	인천광역시	75.4%(49명)
	서울특별시	7.7%(5명)
	경기도	10.8%(7명)
	기타	6.1%(4명)
	합계	100%(6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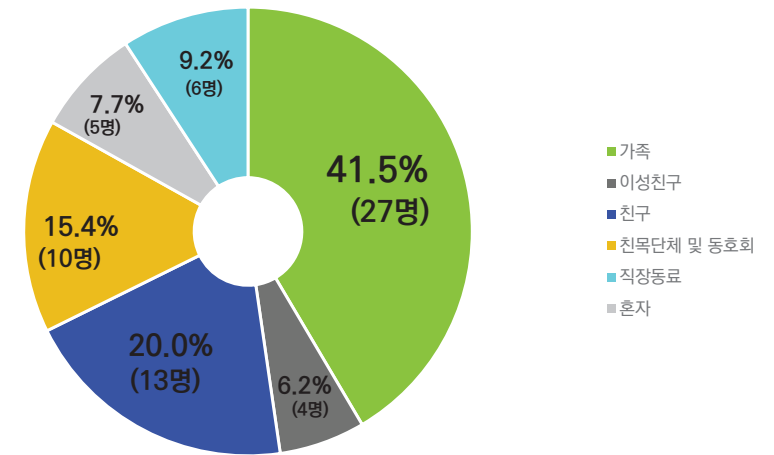
| 남동문화재단 인식 여부 |

구분	운영내용	
재단 인식 여부	안다	50.8%(33명)
	모른다	49.2%(32명)
	합계	100%(65명)

| 소래포구(인근 관광지 포함) 인식 여부 |



| 행사 동행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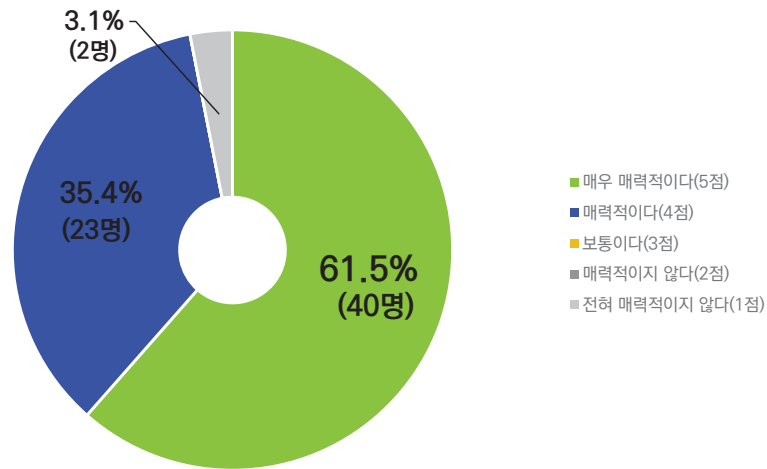
| 소래포구(인근 관광지 포함) 인식 여부 |

구분	운영내용	
소래포구 인식 여부	안다	52.3%(34명)
	모른다	47.7%(31명)
	합계	100%(6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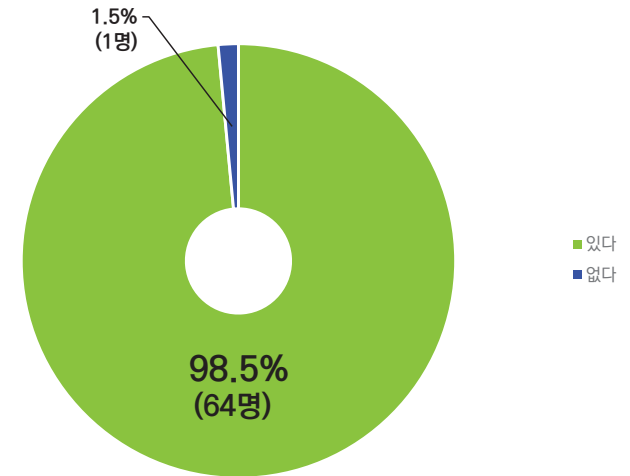
| 행사 동행자 |

구분	운영내용	
행사 동행자	가족	41.5%(27명)
	이성친구	6.2%(4명)
	친구	20.0%(13명)
	친목단체 및 동호회	15.4%(10명)
	직장동료	7.7%(5명)
	혼자	9.2%(6명)
	합계	100%(65명)

| 소래포구(인근 관광지 포함) 매력도 |



| 소래포구(인근 관광지 포함) 재방문 의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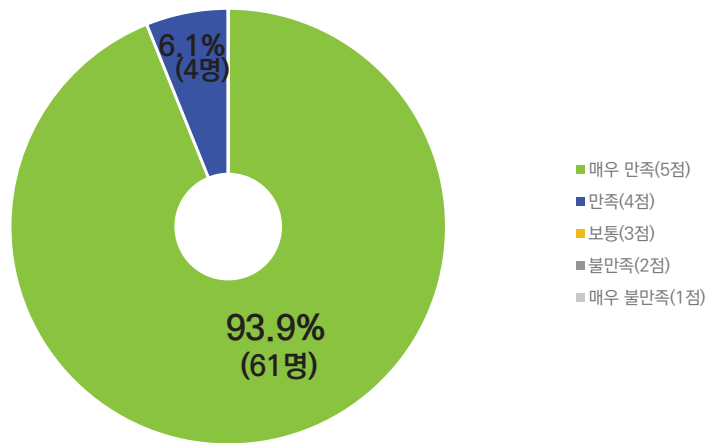
| 소래포구(인근 관광지포함) 매력도 |

구분	운영내용	
소래포구 매력도	매우 매력적이다(5점)	61.5%(40명)
	매력적이다(4점)	35.4%(23명)
	보통이다(3점)	0%(0명)
	매력적이지 않다(2점)	0%(0명)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1점)	3.1%(2명)
	합계	100%(65명)

| 소래포구(인근 관광지 포함) 재방문 의사 |

구분	운영내용	
소래포구 재방문 의사	있다	98.5%(64명)
	없다	1.5%(1명)
	합계	100%(6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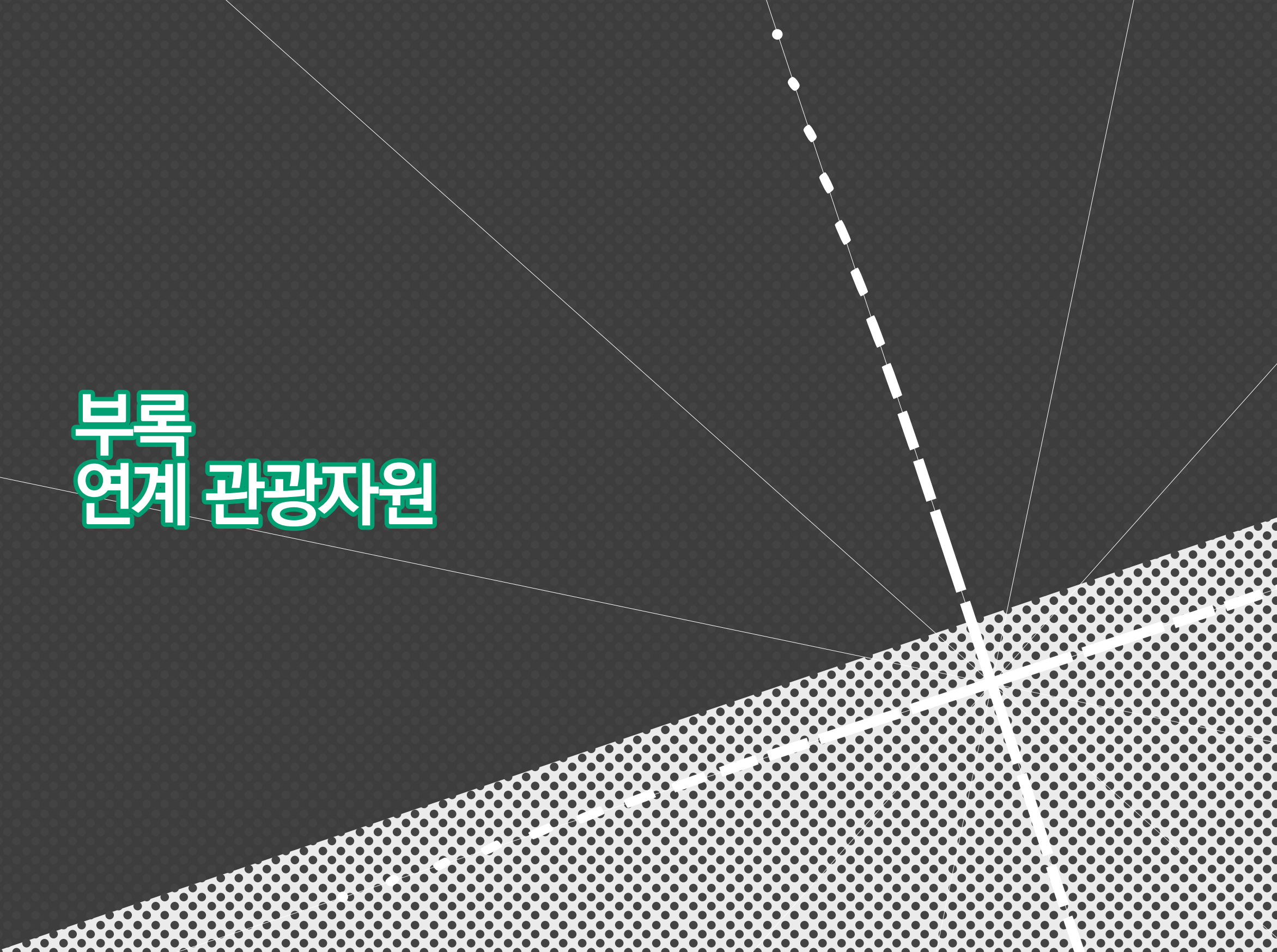
| 행사 만족도 |



| 행사 만족도 |

구분	운영내용	
행사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5점)	93.9%(61명)
	만족한다(4점)	6.1%(4명)
	보통이다(3점)	0%(0명)
	불만족한다(2점)	0%(0명)
	매우 불만족한다(1점)	0%(0명)
	합계	100%(65명)

# 부록 연계 관광자원





## 소래포구 축제

소래포구 축제는 2023년 제23회를 맞이한 인천광역시를 대표하는 지역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2001년 10월 처음 개최하게 되었는데 제1회 축제의 명칭은 '소래포구 새우맛갈 축제'였습니다. 김장철 젓갈 성수기에 개최한 제1회 축제에는 새우젓과 관련된 상식, 좋은 새우젓 고르는 법, 맛있는 김치 담그는 법 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과 함께 젓갈 담그기 경연대회, 새우아가씨 선발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02년 제2회 축제부터 지금의 이름인 '소래포구 축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처음 운영할 당시에는 작은 지역 축제로 운영되었는데, 개최 횟수가 늘어나면서 점차 대규모 축제로 성장해왔습니다. 재래식 어항에서 열리는 특색 있는 축제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도에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운영되었는데 총 45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2023년 축제는 중심 주제로 '소래바다', 하위 주제로 '포구(경관)', '수산물(먹거리)', '어시장(삶)', '상인(사람)', '염전·협계열차(기억)'을 내세워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래포구 축제는 매년 9~10월 소래포구 해오름광장 일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소래습지의 갯벌, 갯골, 폐염전 지역의 다양한 생물 군락지 및 철새 도래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1999년 6월 폐염전을 중심으로 최초 개장하였습니다. 이곳에 있던 염전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1996년까지 소금을 생산하던 곳입니다. 이후 갯벌, 갯골, 폐염전 지역의 다양한 생물 군락지 및 철새 도래지를 관찰하고 보전하는 방향으로 공원 조성이 진행되었고 2009년 5월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에는 습지 생태와 천일염 생산 시설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생태전시관이 있으며, 직접 천일염 생산 및 습지 내 사는 다양한 동·식물을 탐구해 볼 수 있는 자연학습장과 누구나 체험 가능한 해수 족욕장도 있습니다.

또한, 드넓은 갈대밭과 빨간 풍차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동절기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개장하고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최근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다양한 체험활동과 거리 공연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인천 시민뿐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의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소래철교

소래포구 앞에는 수인선 소래철교가 있습니다.

1937년부터 1995년까지 인천 소래포구와 시흥 월곶포구를 잇는 철교로 운영되었습니다. 1994년까지는 협궤열차가 다녔습니다. 협궤열차가 다닐 때도 인천에서 시흥까지 철교로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열차 운행정지 이후부터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소래포구의 인도교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래 소래철교는 일제강점기에 소래염전의 소금과 여주·이천의 쌀을 인천항으로 나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소래와 월곶을 건너는 협궤열차가 다니는 목적으로 활용됐습니다. 특히 월곶동 주민들은 소래포구 쪽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당시 오갈 길이 없어서 소래철교로 걸어 넘어갔다고 합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인천과 시흥을 잇는 42번 국도(수인로) 도로망이 생기고, 소래포구가 관광지로 알려지면서 소래철교를 걸어서 건너는 관광코스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래철교는 보행자 통행시설이 없는 단순 철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록사진을 보면 협궤열차 운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사람이 많고, 때로는 추락하는 사고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탓에 1994년에는 열차운행이 중단되고, 1996년에는 수인선 협궤열차의 선로를 아예 없앴습니다. 이후 철교의 바닥과 난간을 연결하여 인도교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소래철교는 매년 소래포구를 찾는 연인들의 명소라고 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철교를 건너면 헤어지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철교를 건너면서 소원을 빌 때 마침 소래포구로 드나드는 배가 바로 발길을 지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장도포대

조선시대 후기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인천지역 연안의 군비를 강화하기 위해 고종 16년(1879년) 어영대장 신정희와 강화유수 이경하에게 명하여 장도포대를 축조하였습니다.

장도포대는 ‘노루목’, ‘노름’이라 불리는 구릉에 설치되었는데, 그 위치가 현재 소래철교 옆입니다. 장도포대는 화도진에 소속되었으며, 1876년 강화도조약, 1883년 인천항 개항 이후 1894년 화도진이 철폐되면서 같이 폐쇄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화도진도(花島鎭圖)」를 보면 포혈이 3개가 있는 장도포대가 보입니다. 포의 배열을 보면 2문은 바다 방향인 뱀내 쪽을 향하고 있고 1문은 동남 쪽을 향해 외곽과 내곽을 수비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도포대지는 2003년 지표조사, 2004년 발굴조사를 거쳐 2005~2006년 복원되었습니다. 원형은 포혈이 3개 있는 모습이지만, 지형 여건으로 인해 포혈 2개만 복원되었습니다. 장도포대지는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협궐열차

일제강점기인 1937년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에서 인천과 수원을 잇는 협궐단선철도인 수인선(水仁線)을 개통했습니다. 이러한 수인선을 달리던 기차가 바로 협궐열차입니다.

협궐열차의 모습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있는 소래역사관 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래역사관 정문 앞에 인천광역시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된 '협궐 증기기관차(허기-7형)'가 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협궐 증기기관차는 1952년 수원 기관차사무소에서 조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8년까지 수인선 등에서 운행되었습니다.

그 후 1983년 쌍용그룹이 한국도로공사에 기증하면서 대관령 휴게소에 전시되었고 2001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담방문화근린공원으로 이전 설치되었다가 2008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협궐 증기기관차는 수인선 운행이 중단되면서 대부분 폐차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6량만 보존되어 있기에 희귀성이 높은 문화재입니다.



# 남동둘레길

남동둘레길은 남동구의 주요 문화자원을 선으로 엮어 만든 도보길입니다. 총 4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길이는 33.5.km입니다.

1코스는 함께나눔길이라 불리는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장수동 은행나무부터 시작하여 인천수목원을 경유해 만수산 무장애나눔길로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1코스는 총 9km로 약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2코스는 향기가득길이라 불리는데 장수동 은행나무에서 시작하여 인천대공원을 지나 관모산과 장아산, 그리고 장수천을 경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아산 무장애나눔길과 이어집니다. 2코스는 총 10km로 약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3코스인 하늘바다길은 장아산 무장애나눔길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지나 소래포구와 새우타워를 지납니다. 그리고 늘솔길공원 양떼목장과 편백숲 무장애길을 따라 청년미디어타워까지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3코스는 총 8km로 약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4코스는 희망이음길이라 불리는데, 청년미디어타워에서 등배산과 오봉산을 지나 오봉근린공원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4코스는 총 6.5km로 약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2023년 소래바다 문화길 프로젝트 결과자료집

발행일 2023. 11. 30.

발행인 남동문화재단 김재열 대표이사

편집인 남동문화재단 임원재 사무국장

기획인 남동문화재단 김희성 문화예술지원팀장

제작인 남동문화재단 신창희 차장, 이다솜 주임, 황승빈 사원

발행처 남동문화재단

디자인 노아 북앤컬처

문 의 070-8820-4037

본 결과자료집은 2023년도 소래바다 문화길 사업 운영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남동문화재단이 발행하였습니다.  
본 결과자료집에 실린 글과 도판은 남동문화재단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